

碩士學位論文

柑橘產業 發展을 위한
作目班 活性化方案에 關한 研究

- 濟州의 柑橘作目班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姜 志 勇

110·555

濟州大學校 產業大學院

農業經濟學科

李 元 厚

2000년 12월

柑橘產業 發展을 위한 作目班 活性化方案에 關한 研究

- 濟州의 柑橘作目班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姜 志 勇

이 論文을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0년 월

濟州大學校 產業大學院

農業經濟學科

李 元 厚

李元厚의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0년 12월

審查委員長 金 球 宏

審查委員 姜 東 一

審查委員 姜 志 勇

〈抄錄〉

柑橘產業 發展을 위한 作目班 活性化方案에 關한 研究

- 濟州의 柑橘作目班을 中心으로 -

李元厚

濟州大學校 產業大學院 農業經濟學科

指導教授 姜 志 勇

WTO 출범과 더불어 우리 柑橘產業은 農產物 市場과 流通市場의 開放으로 危險과 發展의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따라서 본 研究는 農產物의 市場開放이 확대되고 農產物 流通여건이 变함에 따라 作目班의 組織 및 事業推進 方式은 環境變化에 맞게 再編되어야 할 必要性이 대두되어 作目班에 대한 實態調查를 통해 作目班의 運營實態와 發展段階 및 活性化 要因을 分析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流通體系에 對應하기 위한 作目班의 活性化 方案과 農協의 育成·支援 方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반면 차세에 우리 農產物의 競爭力 향상을 기하고 무분별한 輸入 農產物과의 差別化를 위해 流通事業 전반에 걸친 運營革新과 제도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生產단계에서는 安全 農產物 生產과 低溫流通體系를 시급히 구축하고, 流通부문에서는 효율화를 통한 物類費用의 節減과 상품성 향상을 통한 受取價格 提高 및 作目班 運營活性化에 모든 力量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農產物 流通事業은 事業의 多樣性과 特殊性으로 事業推進과정에서 試行錯誤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農協 任職員들의 전문성과 풍부한 事業經驗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作目班은 農家の 組織化를 통해 영세한 個別 農業經營의 限界를 극복하고 競爭力を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1980년대이후 作目班은 流通부문을 규모화함으로써 農家の 市場競爭力を 增大시키는데 중요한 役割을 해왔으며 지난 25년 동안 政府政策에 의해 몇번의 再編過程을 겪으며 發展해왔다.

農協은 作目班을 發展段階에 따라 기초, 일반, 선진의 3단계로 구분하여, 指導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의 發展段階別 作目班數를 보면 기초 및 일반作目班은 減少하고 선진作目班은 增加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流通市場이 開放됨에 따라 외국의 大形流通業體가 국내에 進出하고 국내 대기업의 流通業 進出도 擴大되고 있다. 이와 함께 1998년부터 개장된 물류센터는 2001년까지 전국에 1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고 2004년에는 農產物 流通의 23%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流通環境의 變化를 바라보면서 作目班이 물류센터나 大形流通業體에 農產物을 직접 出荷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實踐課題를 提示하고자 한다.

- ① 出荷 農產物의 標準規格化(共同選別·品質選別 檢查)
- ② 作目班 單位로 物量을 모아 出荷單位 규모화(共同出荷)
- ③ 공동계산제를 통해 동일한 價格出荷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農產物 流通環境變化에 積極 對應하여 이러한 作目班의 課題를 解決하고 作目班 活性化 方案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農협의 역할측면에서

1. 營農計劃의 農協事業反映
2. 資金支援擴大
3. 農產物 出荷에 있어서 農協의 役割 強化
4. 資材 購買에 있어서 農協의 市場交涉力 強化
5. 販賣業務 인력보강과 專擔體制 구축
6. 作目會의 育成
7. 作目班 組織의 整備 및 電算프로그램 改善
8. 作目班 評價基準 再構成
9. 作目班 운영활동 자가 진단표 作成 체계적으로 指導

◆ 작목반의 역할측면에서

1. 유능한 組織指導者의 발굴 및 養成
2. 작목반의 자구노력 및 의식전환

◆ 행정 및 연구기관의 역할측면에서

1. 農業技術 指導 強化(고품질 生產技術 지도 강화)
2. 공동계산제 및 환경농산물 생산 실시 작목반 집중지원

結論的으로 作目班이 중심이 되어서 流通마진을 極少化시키고 消費者들에게 最低價格으로 봉사하며 流通을 生產者組織이 一括的으로 전담하여 協相能力을 제고시키며 안정된 價格에 고품질의 農產物을 공급할 수 있을 때 대외 競爭力은 提高된다. 그리고 作目班 組織이 해당 農산물의 生產的인 면에서만 效率성을 提高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市場開拓과 消費者들의 滿足感을 提高시키려는 努力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므로써 生產者들의 收益性 提高는 물론 作目班 組織의 活性化도 촉진될 것이다.

目 次

제1장 序 論	1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1
2. 研究의 范圍와 方法	1
3. 研究의 動向	2
제2장 柑橘產業 動向	4
1. 國內의 柑橘產業 動向	4
2. 世界의 柑橘產業 動向	13
제3장 作目班 發展過程과 現況	20
1. 作目班의 概念	20
2. 作目班 發展過程	25
3. 作目班 現況	27
제4장 柑橘作目班의 運營實態와 問題點	34
1. 柑橘作目班의 組織形態 및 現況	34
2. 柑橘作目班 運營實態	40
3. 柑橘作目班의 問題點	51
4. 農產物 流通環境 變化와 作目班의 對應 課題	52
제5장 柑橘作目班의 活性化 方案	64
제6장 要約 및 結論	73
〈參考文獻〉	75
〈英文抄錄〉	76
〈附 錄〉	79

《表 次 例》

〈표1〉柑橘의 用途別 需要量 變化趨勢	5
〈표2〉柑橘의 栽培面積 및 供給量 變化趨勢	6
〈표3〉年度別 단위면적당 生產量과 粗收入의 變化	7
〈표4〉柑橘의 生산액 變化趨勢	8
〈표5〉柑橘의 농업성장 기여율	9
〈표6〉柑橘의 地域集中度	10
〈표7〉柑橘의 生產面積·生產量·조수익·호당所得의 變化推移率	10
〈표8〉柑橘栽培農家中 주종農家 比率	11
〈표9〉地域내 총생산에서의 柑橘產業의 位置	12
〈표10〉農產物 총收入에서 柑橘이 차지하는 比重	12
〈표11〉世界의 柑橘類(오렌지, 탄제린계통, 그레이프후르트, 레몬등) 生產動向	15
〈표12〉世界의 오렌지輸出 및 價格動向	16
〈표13〉世界의 탄제린, 만다린, 클레멘틴, 온주밀감의 輸出 및 價格動向	17
〈표14〉世界의 오렌지 輸入 및 價格動向	18
〈표15〉世界의 탄제린, 만다린, 클레멘틴, 온주밀감의 輸入 및 價格動向	18
〈표16〉農村組織의 類型	21
〈표17〉作目班 類別 組織現況	27
〈표18〉作目班 農協中央會 地域분부별 發展段階別 作目班 現況	28
〈표19〉作目班 發展段階別 組織現況	29
〈표20〉作目班 主要品目別 組織數	29
〈표21〉作目班 類別·發展段階別 組織現況	30
〈표22〉作目班 年度別·發展段階別 組織現況	30
〈표23〉作目班 年度別·類別 組織現況	31
〈표24〉作目班 年度別 作目班 成長推移	32
〈표25〉會員 組合別 柑橘作目班 組織現況	35
〈표26〉濟州柑橘農協 사무소별 柑橘作目班 組織現況	35
〈표27〉濟州柑橘農協 作目班 發展段階別 平均 반원수	36
〈표28〉濟州柑橘農協 선과장 運營作目班 組織의 經營여건	36
〈표29〉濟州柑橘農協 사무소별 發展段階別 作目班 組織現況	37
〈표30〉濟州柑橘農協 作目班 發展段階別 設立現況	37
〈표31〉濟州柑橘農協 사무소별 發展段階別 作目班 現況	38
〈표32〉作目班 評價表(원예·특작품목)	41
〈표33〉濟州柑橘農協 發展段階別 作目班員數 分布現況	43
〈표34〉濟州柑橘農協 規模別 作目班 分包現況	44
〈표35〉濟州柑橘農協 作目班 發展段階別 共同施設現況	44
〈표36〉濟州柑橘農協 作目班 發展段階別 共同裝備現況	45
〈표37〉濟州柑橘農協 發展段階別 作目班當 平均 共同子매實積	46
〈표38〉濟州柑橘農協 發展段階別 品質認證 作目班 現況	46
〈표39〉濟州柑橘農協 環境農產物 生產作目班 栽培實態 조사 現況	47
〈표40〉濟州柑橘農協 共同精算 實施 作目班	49
〈표41〉濟州柑橘農協 5년이상 發展段階 成長 停滯組織	50
〈표42〉作目班 運營에 있어서 어려운 點	50
〈표43〉作目班 運營에 따른 改善點	50
〈표44〉小規模 作目班의 部分的 統合에 대한 見解	51
〈표45〉농산물 유통경로 유형	53

《그림次例》

〈그림1〉 단위면적당 生產量 수취가격의 變化推移	8
〈그림2〉 作目班 組織의 活動에 의한 經濟效果	23
〈그림3〉 물류센터 및 大型流通業體 出荷條件	58

第1章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과 目的

제주에서 감귤산업을 基幹產業이란 차원을 넘어서서 제주도민의 生命產業이라고 일컬어진다. 감귤의 年間粗收入은 約 6,000억 원이며 비료·농약 등 農資材、購入과 流通 및 物流費、雇傭人力費 등을 합하면 1조억 원 규모로 제주지역 총생산액 (GR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다.

이와 같이 제주도에서 중요한 경제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감귤산업이 수입개방과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최근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감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수입개방으로 오렌지생과가 10만톤, 오렌지 과즙을 4만톤 수입되고 있고 특히 오렌지 과즙 4만톤은 생과로 환산하면 40만톤에 이르는 물량으로 이들 모두 합하면 50만톤으로 2000년산 제주감귤생산량 53만톤에 벼금갈반한 量이다. 이것 뿐만 아니라 포도와 바나나를 비롯한 각종 과일들과 과즙들이 봇물터지듯이 수입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산 포도와 배, 단감 등 과수 재배면적이 최근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감귤가격은 이러한 공급과잉현상으로 장기적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견되어진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감귤산업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자 조직인 감귤작목반을 육성시키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外國產 農產物과 價格 및 品質 競爭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個別農家單位보다는 作目班 또는 몇 개의 作目班이 결합된 作目會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労賃上昇으로 영농비 부담이 커지고 농업생산형태도 농기계, 농사시설 등에 값비싼 자본재 이용이 증가되고 동시에 高度의 新技術 導入의 必要性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個別 農家單位로 값비싼 농기계나 시설 등의 자본재를 구입하고 이용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小規模 農家들이 結合하여 經營의 規模를 擴大하고 이렇게 擴大된 經營條件下에서 새로운 技

術의 導入과 資本財의 高度化로 集約度를 높이고 經營能率을 향상시켜야 한다.

作目班의 활성화를 통해서 生產資財, 施設, 農機械 등 자본재를 共同購入 共同利用이 가능하므로 規模의 經濟에 의해서 시설, 기계 등의 費用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農事기술의 도입과 공동관리로 農산물의 品質을 향상시켜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共同出荷를 통해서 販賣費用도 줄일 수 있는 利點이 있다.

앞으로 農產物 流通여건이 변함에 따라 作目班의 組織 및 事業推進 방식은 環境變化에 맞게 재편되어야 할 必要性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作目班에 대한 實態調査를 통해 作目班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活性化 要因을 분석하고 있다.

-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流通體系에 부응하기 위한 作目班의 活性化 方案과 農協의 育成·지원방안을 모색하여.
- 본 研究에서 지금까지 分析하고 論議한 結果를 토대로 作目班 活性化를 위한 구체적인 方案을 제시하는데 研究目的이 있다.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本 研究의 範圍는 濟州道內 專門農協인 濟州柑橘農協 柑橘作目班을 中心으로 現地 面接 및 設問調查를 통하여 作目班 發展過程과 現況, 柑橘作目班의 運營實態와 問題點 및 柑橘作目班의 活性化 方案을 조사하였다.

3. 研究의 動向

韓國의 作目班 組織에 대한 지금까지의 研究는 대부분이 米作部分에 集中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農業에서 차지하는 米作部分의 社會·經濟的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農業生產組織이 人間 勞動力의 단순 結合을 바탕으로 發展해 오는 과정에서 米作部分의 機械化 영농단 보급·擴大가 급속하게 이루어 졌다는 것과도 밀접한 關聯이 있다. 즉, 作目班 組織에 대한 研究가 米作部分의 農機械 이용 組織擴大와 더불어 進行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委託 農會社와 農組合法人 등으로까지 擴散되고 있는데 이들 研究의 대부분은 政策課題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運營實態에 관한 分析(특히 경영수지 分析)에 集中되어 있을뿐 作目班組織 內外部의 葛藤과 矛盾관계에 대

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제주대학교 강경선 교수의 제주 '柑橘作目班'의 事例研究를 중심으로 한 "農業生產者 組織論"에 관한 研究는 濟州의 柑橘作目班 組織研究의 理論的 틀과 동향의 종합적인 정리, 作目班에 대한 體系的 分析이라는 側面에서 濟州의 柑橘作目班 研究에 중요한 意義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農協事業의 活性化라는 側面에서 이루어진 作目班 組織의 運營實態와 개선에 관한 다수의 事例研究 역시 作目班 研究에 중요한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

제2장 柑橘産業 動向

1. 國內의 柑橘産業 動向

1) 國내의 柑橘産業의 수급動向

1975~1997년까지 지난 22년간 감귤의 生과用 需要量은 무려 8.9배가 증가하였고 가공투입량과 輸出量은 각각 7.2배, 3,413배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柑橘의 총 수요량은 동기간동안 약8.8배가 증가하였다.

1997년산 감귤의 용도별 수요량은 생과용이 664,617톤으로서 92.7%를 차지하였고, 수출량은 0.5%인 3,413톤에 머물고 있다. 가공투입량은 49천톤으로서 총 수요량의 6.9%에 불과한 實情이다. 그리고 감귤의 1인당 소비량은 1975년 2.3kg에서 1997년에는 15.3kg으로 늘어 약 6.7배가 증가하였다.

柑橘의 生產量은 1975년 81천톤내외에서 1997년에는 693천톤이 生產되어 지난 22년동안 약8.5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栽培面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동기간 동안 재배면적은 약 2.5배가 증가하였다. 1997년 감귤의 單數는 2,689kg으로서 지난 20년동안 6.2배가 증가하였다.

연도별 단보당 生產量과 粗收入은 해거리 現狀으로 인해 거의 반대 방향으로 變化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단보당 생산량과 10a당 조수입 또는 kg당 농가수취가격은 거의 반비례하는 現狀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柑橘需要量을 년간 60만톤으로 설정하고 이보다 많을 경우 농가수취가격의 하락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적정생산을 통하여 농가의 수취가격을 안정화 시키자는데 정책목표가 設定된 것으로 여겨진다.

감귤의 생산량은 기상적 條件과 생산기술면에서 決定된다. 1988년~1997년까지 10년간 누계 5,882천톤으로 평균 년간 5,882백톤이 生產되어 60만톤이 적정량으로 설정한 수치에 근사하고 있으며 1ha당 28톤(10년간 최고치 평균)이 生產된다고 하면 721,860톤이 생산될 수 있는 이론치가 計算되며 1997년 생산량은 1ha당 26.9톤, 총 생산량 693,200톤이 生產되었다. 1989년은 사상최대 生產量을 나타내었는데 1ha당 38.6톤, 총 생산량 746,400톤이 生產되었으며 다음이 1992년 1ha

〈표1〉 감귤의 용도별 수요량 변화 추세

연도	생과용 (톤)	비율 (%)	가공용 (톤)	비율 (%)	수출 (톤)	비율 (%)	수요량 계	비율 (%)	1인당 수요량 (kg)
1975(A)	74,298	91.6	6,807	8.4	0	0.0	81,105	100	2.3
1976	46,548	92.3	3,884	7.7	0	0.0	50,432	100	1.4
1977	108,057	93.6	7,443	6.4	0	0.0	115,500	100	3.2
1978	101,575	80.6	24,375	19.4	0	0.0	125,950	100	3.4
1979	153,389	89.1	18,761	10.9	0	0.0	172,150	100	4.6
1980	163,672	87.3	23,798	12.7	0	0.0	187,470	100	4.9
1981	217,474	87.8	30,307	12.2	0	0.0	247,780	100	6.4
1982	277,559	85.8	45,861	14.2	0	0.0	323,420	100	8.2
1983	311,411	90.0	34,465	10.0	24	0.0	345,900	100	8.7
1984	233,398	89.4	27,602	10.6	0	0.0	261,000	100	6.5
1985	323,062	81.9	71,238	18.1	0	0.0	394,300	100	9.7
1986	284,645	85.5	48,455	14.5	0	0.0	333,100	100	8.1
1987	364,352	78.5	100,039	21.5	0	0.0	464,391	100	11.2
1988	323,522	78.4	89,138	21.6	0	0.0	412,660	100	9.8
1989	546,369	73.2	200,021	26.8	10	0.0	764,400	100	17.6
1990	343,049	69.6	149,463	30.3	188	0.0	492,700	100	11.5
1991	468,982	84.3	86,268	15.5	1,100	0.2	556,350	100	12.9
1992	556,627	77.4	160,942	22.4	1,131	0.2	718,700	100	16.5
1993	533,248	86.1	84,426	13.6	1,326	0.2	619,000	100	14.1
1994	467,910	90.7	50,035	9.1	1,000	0.2	548,945	100	12.3
1995	596,600	94.7	32,303	5.1	1,100	0.2	630,003	100	14.1
1996	477,413	95.6	21,233	4.3	744	0.1	499,390	100	11.0
1997(B)	664,617	92.7	49,145	6.9	3,413	0.5	717,175	100	15.3
B/A	8.9		7.2		3,413		8.8		6.7

주)생식용 수요량 = 생산량+수입량-가공량-수출량.

제주도, 「감귤유통처리분석」, 각년도

당 33.1톤, 총 생산량 718,700톤이 生産되었다.

향후 1992년도와 같이 豊年이豫想될 경우(최대치) 현 재배면적에서 1ha당 33.1톤, 총 生産量 853,351톤이 생산될 수 있는 가정치가 나오며 幹年이 되는 해에는 1ha당 18톤, 총 생산량 464,058톤이 生産될 수 있는 이론치가 計算된다. 이는 적정생산량 60만톤에 대한 흥년시 -23%, 풍년시 +42%의 隔年結果 現狀이며 지난 10년간 평균 -18%, +25%의 隔年結果 現狀을 나타내고 있다.(사과의 경우 -13.6%, +15%)

〈표2〉 감귤의 재배면적 및 공급량 변화 추세

연도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톤)	수입량(톤)	공급량계(톤)
1975(A)	10,930	742	81,105	0	81,105
1976	11,566	436	50,432	0	50,432
1977	11,710	986	115,500	0	115,500
1978	12,089	1,042	125,950	0	125,950
1979	12,909	1,334	172,150	0	172,150
1980	14,095	1,330	187,470	0	187,470
1981	14,764	1,678	247,780	0	247,780
1982	15,499	2,087	323,420	0	323,420
1983	16,975	2,038	345,900	0	345,900
1984	16,975	1,538	261,000	0	261,000
1985	16,969	2,324	394,300	0	394,300
1986	16,958	1,964	333,100	0	333,100
1987	17,614	2,636	464,391	0	464,391
1988	17,829	2,315	412,660	0	412,660
1989	19,335	3,860	746,400	0	746,400
1990	19,414	2,538	492,700	0	792,700
1991	19,605	2,838	556,350	0	556,350
1992	21,727	3,308	718,700	0	718,700
1993	21,479	2,882	619,000	0	619,000
1994	21,448	2,559	548,945	0	548,945
1995	21,605	2,845	614,770	15,233	630,003
1996	25,802	1,860	479,980	19,410	499,390
1997(B)	25,781	2,689	693,200	23,975	717,175
B/A	2.4	3.6	8.5	23,975	8.8

자료 : 제주도, 「감귤유통처리분석」,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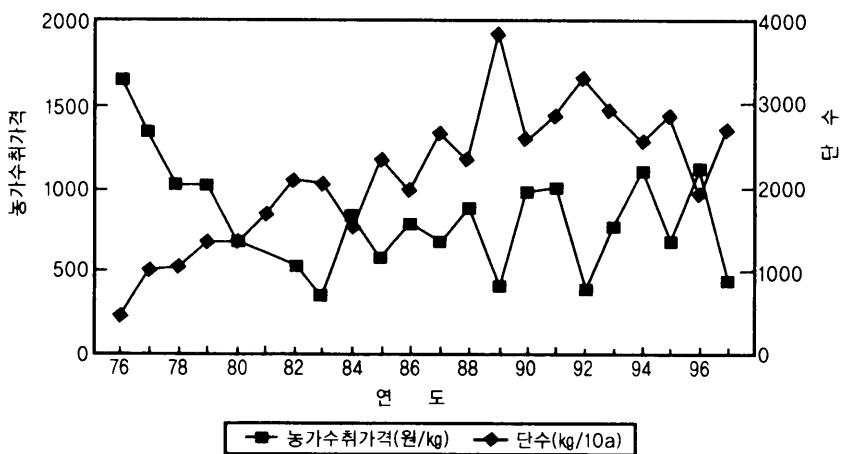
1988~1997년까지 10년간에서 「1988~1992」년까지 총 누계생산량은 2,926,810M/T, 「1993~1997」년까지 총 누계생산량은 2,955,895M/T으로, 그 수치는 29,085M/T이 많이 생산된 결과이나 동기간의 면적증가와 수령증가에 의한 생산량 증가분의 일부를 간별, 적과 등에 의하여 흡수한 긍정적 결과도 있다.

〈표3〉 연도별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조수입('95년 불변가격)의 변화

연 도	총조수입 (백만원)	농가수취가격 (원/kg)	단위면적당생산량 (kg/10a)	단위면적당조수 입
1975(A)	87,184	1,669	436	753.8
1976	120,549	1,305	986	1,029.5
1977	111,223	1,007	1,042	920.0
1978	172,118	1,003	1,334	1,333.3
1979	138,653	668	1,330	983.7
1980	157,032	607	1,678	1,063.6
1981	191,900	528	2,087	1,238.1
1982	139,063	346	2,038	819.2
1983	214,992	837	1,538	1,266.5
1984	227,261	575	2,324	1,339.3
1985	265,938	772	1,964	1,568.2
1986	297,247	669	2,636	1,687.6
1987	334,754	866	2,315	1,877.6
1988	307,421	411	3,860	1,590.0
1989	427,276	976	2,538	2,200.9
1990	523,598	995	2,838	2,670.7
1991	310,401	399	3,308	1,428.6
1992	465,960	752	2,882	2,169.4
1993	602,313	1,092	2,559	2,808.2
1994	433,447	681	2,845	2,006.2
1995	578,902	1,087	1,860	3,243.6
1997(B)	392,233	440	2,689	1,521.4

자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각년도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각월호.

〈그림1〉 단위면적당 생산량 수취가격의 변화추이



2) 柑橘產業의 經濟的 比重

가. 柑橘產業의 生산액 추세 및 農業成長 寄與度

柑橘의 생산액은 1970년에서 1997년 사이에 무려 25.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감귤 생산액 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6.6%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97년 현재 22.9%를 점하고 있다. 이는 1995년까지 가장 비중이 높았던 사과의 21.5%를 앞선 것으로 가장 높은 比率을 점하고 있다. 〈표4〉

〈표4〉 감귤의 생산액 변화 추세

생산액(십억원, 1990년 불변가격)

구 분	1970(A)	1980	1990	1995	1997(B)	B/A
사과	152	223	440	654	507	3.3
감귤	21	124	287	518	539	25.7
배	41	33	117	209	364	8.9
복숭아	36	49	130	140	167	4.6
포도	37	63	106	144	458	12.4
감	22	13	112	190	245	11.1
기타	9	—	117	53	76	8.4
과일계	318	504	1,309	2,208	2,356	7.4

생산액 비중(%)						
사과/과일계	47.8	44.2	33.6	29.6	21.5	
감귤/과일계	6.6	24.6	21.9	23.5	22.9	
배/과일계	12.9	6.5	8.9	9.5	15.4	
복숭아/과일계	11.3	9.7	9.9	6.3	7.1	
포도/과일계	11.6	12.5	8.1	20.1	19.4	
감/과일계	6.9	2.6	8.6	8.6	10.4	
기타/과일계	2.8	-	8.9	2.4	3.2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년도

〈표5〉 감귤의 농업성장 기여율

(단위: %)

구 분	1970~80	1980~90	1990~95
감 귤	7.1	3.4	10.8
사 과	5.0	4.4	10.0
배	-0.6	1.7	4.3
복 송 아	1.0	1.6	0.5
포 도	1.8	0.9	15.9
감	-0.6	2.0	3.7
기 타	0	-	-3.0
과 일	13.8	14.1	42.1
농 업	100.0	100.0	100.0

자료 : 조덕래, “수입개방에 따른 사과 산업의 구조개편과 발전방향”, 『수입개방에 따른 한국과수산업의 과제와 방향』, 21세기 제주농업연구회 주최 세미나 자료, 1997.5..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과일 생산액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과수부문의 농업성장 기여율도 크게 증가하였다. 1970년대에는 과수부문의 농업성장 寄與度가 13.8%였으나 1990년대에는 42.1%로 증가하였다.

柑橘의 농업성장 기여율은 1970년대의 7.1%에서 1990년대에는 10.8%로서 과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5〉

〈표6〉 柑橘의 地域 集中度(1995년)

(단위: %)

	감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농가수(호)	25,440	71,771	25,021	25,010	48,304	44,832
제주	98.4(62.9)					
경기			13.1(2.0)			
충남			17.6(2.3)			
전남			16.0(1.6)			35.4(6.3)
경북		72.4(20.0)	21.1(2.0)	49.8(4.8)	43.7(8.1)	
경남			14.4(1.8)			51.3(11.6)

주) ()안은 지역별 전체농가중에서 각 과일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5. 인용 : 조덕래(1997. 5), p. 41

나. 柑橘產業의 地域經濟 비중 및 重要性

柑橘栽培 농가중 98.4%가 제주지역에 集中되어 있어 柑橘產業의 지역경제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참조. 이는 사과의 지역집중도인 72.4%보다 훨씬 높은 水準이다.

〈표7〉 감귤의 생산면적·생산량·조수익·호당소득의 변화 추이율

연도	①생산농가	②생산면적	③생산량	④조수익	⑤호당소득
	(호)	(ha)	(톤)	(백만원)	(천원)
1975	21,809	10,930	81,108	14,599	699
1980	19,996	14,094	187,470	54,500	2,725
1985	23,332	16,969	394,300	124,189	5,323
1990	25,616	19,414	492,700	315,100	12,301
1995	26,589	21,605	614,770	433,447	16,302
20년간 평균증가율	0.88%	3.76%	24%	25%	25%
‘75년 대비 ‘95년 증가율	1.28배	1.98배	7.58배	29.69배	24.37배

자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감귤유통처리 실태분석」 각년도 자료로부터 작성

감귤의 粗收益 寄與度에 의해 살펴보면, 제주지역 전체 農產物 조수익의 60% 전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單一品目으로는 계속해서 제1위의 粗收益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生產量에 있어서는 1990년대 초반에 비해서 다소 減少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제주지역 전체 農產物의 50% 전후의 生產量을 점하고 있다. 1995년의 경우 柑橘의 粗收益은 4,334억 원으로 전체 농산물의 57.3%, 1차산업에서의 37.7%의 높은 寄與度를 나타내고 있다. (表7) 참조)

한편 柑橘 農家의 경우 栽培 농가 중 주종농가(감귤농업으로부터 가장 많은 수입이 발생하는 농가)수는 22.8천호로서 柑橘農家 전체의 89.8%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도의 柑橘 주종농가의 비중은 1990년도의 그것보다 6.2%가 증가하고 있어 專業化의 추세가 더욱더 強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8)

〈表8〉 柑橘 栽培 농가중 주종농가 비율

구 분	재배농가수(천호)		주종농가수(천호)		주종농가비율(%)	
	1990	1995	1990	1995	1990	1995
감귤	22.2	25.4	18.6	22.8	83.6	89.8
사과	70.9	71.8	39.0	41.5	55.0	57.8
배	15.7	25.0	7.1	11.6	45.2	46.4
복숭아	39.6	25.0	12.5	11.0	31.5	44.0
포도	35.5	48.3	16.5	30.2	46.4	62.5

주) 주종농가는 농가의 조수입 중 과수 농업으로부터 가장 많은 수입이 발생하는 농가를 의미함.

자료 :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5, 인용 : 조덕래(1997. 5), p.41.

그리고 제주도의 1997년 현재 총 경지면적 56,517ha의 45.6%인 25,781ha, 총 농가호수 40,224호의 89.6%인 36,055호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제주의 柑橘 產業은 지역내 총생산에서 1996년 현재 11.7%(1990-1996 평균 13.1%), 농림어업 附加價值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43%(1990-1996 평균 42.1%)를 점하고 있다(表9).

또한 柑橘粗收入은 1997년 현재 제주의 농업총조수입의 53.3%(1990-1997 평균 60%)를 차지하고 있다. (表10)

〈표9〉 지역내총생산에서의 감귤산업의 위치

연 도	지역내총생산 (A)	농림어업 (B)	감귤부가가치 생산액*(C)	B/A	C/A	C/B
1985	1,007,330	403,383	148,869	40.0	14.8	36.9
1990	1,731,554	588,884	229,492	34.0	13.3	39.0
1991	1,965,005	671,841	287,206	34.2	14.6	42.7
1992	2,019,606	624,090	223,955	30.9	11.1	35.9
1993	2,092,401	605,082	248,480	28.9	11.9	41.1
1994	2,412,377	713,225	330,761	29.6	13.7	46.4
1995	2,650,292	876,753	409,539	33.1	15.5	46.7
1996	2,756,268	750,009	322,635	27.2	11.7	43.0
‘90-‘96평균	2,232,500	689,984	293,153	31.1	13.1	42.1

주)* 감귤부가가치생산액은 감귤생산액에 각년도의 「농축산물표준소득」의 감귤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정된 것임.

자료 : 농림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1998. 7.

〈표10〉 농산물총수입에서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억 원)

연 도	농업총조수입(A)	감귤조수입(B)	B/A(%)
1990	5,580	3,151	56.5
1991	6,348	4,251	67.0
1992	4,936	2,623	53.1
1993	6,328	3,948	62.4
1994	8,383	5,521	65.9
1995	7,566	4,334	57.3
1996	9,652	6,079	63.0
1997	7,520	4,009	53.3

자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각년도.

따라서 이와 같이 柑橘産業은 地域 集中度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종농가 비율이 높다는 감귤농가 자체의 특성과 함께 柑橘産業이 제주지역 경제에서 갖고 있는 지역총생산에서의 위치와 農業粗收益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보면 柑橘産業이

침체되면 이것은 바로 제주 地域經濟의 침체 정도와 농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2. 世界의 柑橘 產業 動向

1) 世界의 柑橘類 生產動向

世界의 柑橘類(오렌지, 탄제린계통, 그레이프후르트, 레몬 등 포함)의 1997년 현재 생산량은 100,025천톤이다. 최대의 生產國家는 브라질로서 24,244천톤을 生產하여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렌지쥬스의 최대 輸出國이다. 다음으로는 감귤류가 收入 開放되면서 우리가 제일 우려해야 할 상대국인 美國이 15,538천톤을 생산하여 16%, 중국이 10,565천톤으로 1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中國의 생산량은 급격한 신장세를 보여 1980년 백만톤 수준이던 것이 1997년 10배가 증가한 천만톤 수준으로, 栽培面積 기준으로는 세계 1위 이지만 생산량 기준으로는 世界 3위이다. 이렇게 볼때 중국은 현재 1ha당 수확량이 6.7M/T으로써 韓國의 약 25.2M/T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水準이다. 이렇게 단위당 수확량이 낮은 이유는 品種이나 管理技術이 낙후되어 있으며 과수원이 거의 방임상태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經濟發展과 技術水準의 向上으로 생산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豫想된다.

그 외 주요 生產國은 멕시코, 스페인이 각각 5백만톤 수준이고 인도, 이탈리아, 이란이 각각 3백만톤의 生產量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656천톤으로써 세계 전체 생산량의 0.6%에 불과하다.

오렌지의 生產量은 1997년 현재 64,448천톤으로써 전체 감귤류 생산량의 64.4%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인 增加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의 生產國은 브라질로서 22,978천톤을 生產하여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미국이 11,500천톤을 생산하여 전체 오렌지 生產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주요 生產國은 멕시코가 4,000천톤, 스페인 2,800천톤, 중국 2,680천톤, 이탈리아와 인도가 2,000천톤 水準으로 나타났다.

탄제린류(탄제린, 만다린, 클레멘틴, 온주밀감)의 生產動向을 보면 1997년 현재 17,693천톤으로써 이는 감귤류 총 생산량의 17%에 지나지 않는 水準으로 世界의 감귤류 생산은 오렌지를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탄제

린류(탄제린, 만다린, 클레멘틴, 온주밀감)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으로 1997년 6,888천톤을 生産하여 전세계 생산량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이외의 주요 生產國으로는 세계 제4위의 柑橘生産國이며, 유럽 최고의 생산국가인 스페인으로서 2,000천톤을 생산하여 11%, 일본이 1,500천톤을 생산하여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49천톤을 生産하여 세계탄제린류(탄제린, 만다린, 클레멘틴, 온주밀감) 생산량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世界의 柑橘類 輸出 및 價格動向

오렌지의 총 輸出物量은 4,551천톤으로 세계 오렌지 총생산 64,448천톤의 7% 水準이 거래되고 있다.

최대 수출국은 세계 4위 柑橘生産國이며 유럽최고의 생산국가인 스페인으로 1996년 현재 1,281천톤을 수출하여 세계전체 수출량의 2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미국으로 514천톤을 輸出하여 전체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주요 輸出國으로서는 모로코가 428천톤으로 9.3%, 남아공이 336천톤으로 7.4%, 그리스가 270천톤으로 6%, 이스라엘이 247천톤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스페인, 남아공, 이스라엘, 모로코 등은 식물방역법상 우리나라에 감귤을 輸出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條件附 수출 등의 方法으로 들어오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오렌지의 수출가격(FOB 가격기준) 動向을 살펴보면 1996년 현재 톤당 503US\$ 수준인데 輸出價格이 높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톤당 638US\$로 나타났고, 낮은 나라는 브라질, 모로코, 남아공, 그리스, 이스라엘 등이 톤당 200~450US\$ 水準이다.

탄제린류(탄제린, 만다린, 클레멘틴, 온주밀감)의 총 輸出物量은 2,163천톤으로서 世界 총생산 17,693천톤의 12.2%가 去來되고 있다. 최대 수출국은 스페인으로서 1996년 현재 1,121천톤을 輸出하여 세계 전체 수출량의 반을 넘는 52%를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의 클레멘틴은 海外市場에서 제주밀감과 競爭이 되고 있는 商品으로 濟州柑橘의 연간 輸出物量이 1천톤 내외인 것에 비하면 스페인에서 수출하는 클레멘틴의 양은 우리의 수출 規模와는 比較가 안될 정도로 크다. 스페인의 경우 전

〈표11〉 세계의 감귤류(오렌지, 탄제린계통, 그레이프후르트, 레몬 등) 생산동향

(단위:천톤)

국가별	총 계 (오렌지, 탄제린계통, 그레이프후르트, 레몬 등)		오 렌 지		탄제린, 만다린, 클레멘틴, 온주밀감	
	1995	1997	1995	1997	1995	1997
브 라 질	20,879	24,244 (24%)	19,613	22,978 (36%)	749	749 (4.2%)
미 국	14,328	15,538 (16%)	10,371	11,500 (18%)	493	639 (3.6%)
중 국	8,697	10,565 (11%)	2,167	2,684 (4%)	5,672	6,888 (39%)
멕 시 코	4,967	5,458 (5.5%)	3,571	3,917 (6%)		
스 폐 인	4,768	5,330 (5.3%)	2,587	2,729 (4.2%)	1,687	1,969 (11%)
인 도	3,250	3,252 (3.2%)	2,080	2,080 (3.2%)		
이 탈 리 아	2,608	3,250 (3%)	1,597	2,078 (3.2%)	451	561 (3.2%)
이 란	3,047	3,122 (3%)	1,555	1,600 (2.5%)	616	650 (3.6%)
이 집 트	2,278	2,312 (2%)	1,555	1,522 (2.4%)	411	435 (2.6%)
나 이 지 리 아	2,200	2,200 (2%)				
파 키 스 탄	1,959	2,014 (2%)	1,372	1,410 (2.1%)	510	522 (3%)
아 르 헨 티 나	2,100	1,950 (2%)	760	700 (1%)	388	270 (1.5%)
일 본	1,762	1,904 (2%)			1,378	1,508 (8.5%)
터 키	1,782	1,403 (1.4%)	842	745 (1.1%)	453	360 (2%)
그 리 스	1,216	1,272 (1.3%)	938	1,011 (1.6%)		240 (1.3%)
남 아 공 화 국	980	1,208 (1.2%)	748	978 (1.5%)		
모 로 코	997	1,200 (1.2%)	702	775 (1.2%)	276	400 (2.2%)
태 국	1,070	1,043 (1%)	325	315 (0.5%)	650	630 (3.6%)
이 스 라 엘	885	841 (0.8%)	350	325 (0.5%)		
호 주	552	703 (0.7%)	442	559 (0.9%)		
페 르	598	676 (0.6%)				
한 국	621	656 (0.6%)			615	649 (3.6%)
인 도 네 시 아	1,005	623 (0.6%)	1,005	623 (0.9%)		
베 네 주 엘 라	683	603 (0.6%)	593	514 (0.8%)		
시 리 아	579	515 (0.5%)	303	236 (0.4%)		
쿠 바	574	513 (0.5%)				
기 타	7,484	7,630 (8%)	5,133	5,169 (8%)	1,392	1,223 (7%)
세 계 총 계	91,869	100,025 (100%)	58,609	64,448 (100%)	157,411	17,693 (100%)

- 자료 : FAO인터넷사이트 <<http://apps.fao.org:8080>> 1998. 10. 25

〈표12〉 세계의 오렌지 수출 및 가격 동향

국가별	오렌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오렌지 수출량(1996년도)		오렌지 수출 가격동향	
	재배 면적 (ha)	생산량(천톤)	물 량(천톤)	금 액(US\$)	FOB가격기준 (US\$/톤)	
스페인	123,550	2,729	1,281	28%	816,464	638
미국	340,650	11,500	514	11.3%	288,525	561
모로코	55,000	775	428	9.3%	177,487	415
남아공화국	40,000	978	336	7.4%	124,316	370
그리스	39,000	1,011	270	6%	94,847	351
이스라엘	10,000	325	247	5.4%	104,710	424
이탈리아	108,370	2,078	126	2.7%	72,161	573
브라질	974,854	22,978	99	2.1%	20,410	206
터키	37,200	745	84	1.8%	29,072	346
기타	1,767,356	21,329	1,166	26%	559,300	479
합계	3,495,980	64,448	4,551	100%	2,287,292	503

- 자료 : FAO인터넷사이트 <<http://apps.fao.org:8080>> 1998. 10. 25

체 生産量 중에서 加工用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程度이며 생과용 内수시장 消費量은 전체 생산량의 약 30% 程度이다. 다음은 모로코가 203천톤으로 9.5%, 중국이 154천톤으로 7.1%, 터키가 126천톤으로 5.9%를 차지하고 있다. 〈표22〉에서 보듯이 탄제린류(탄제린, 만다린, 클레멘틴, 온주밀감)의 輸出價格(FOB 가격기준)動向을 살펴보면 1996년 현재 톤당 817US \$ 水準인데 우리나라 1,623US \$로 수출가격이 가장 높고 다음이 일본으로 1,474US \$, 미국 1,139US \$, 스페인 984US \$ 수준인데 비해 중국은 수출단가가 톤당 426US \$로 가장 낮다.

中國은 최근에 와서 수출을 始作하였으며 주요 수출 對象國은 러시아, 싱가폴, 홍

〈표13〉 세계의 탄제린, 만다린, 클레멘틴, 온주밀감의 수출 및 가격 동향

국 가 별	탄제린, 만다린, 클레멘틴, 온주밀감의 생산량(천톤)	수 출 량 <1996>		수출가격동향 <1996>	
		물 량(천톤)	금 액(US \$)	FOB가격기준	
아 르 헨 티 나	270	37	1.7%	24,275	656
중 국	6,888	154	7.1%	65,557	426
그 리 스	240	27	1.3%	15,310	567
이 탈 리 아	561	57	2.7%	35,900	629
일 본	1,508	5	0.2%	NA	1,474
한 국	649	0.9		1,462	1,623
모 로 코	400	203	9.5%	131,651	648
스 패 인	1,969	1,121	52%	1,103,743	984
터 키	360	126	5.9%	53,066	421
미 국	639	33	1.6%	36,907	1,139
기 타	4,209	399	18%	298,456	748
합 계	17,693	2,163	100%	1,766,327	817

- 자료 : FAO인터넷사이트 <<http://apps.fao.org:8080>> 1998. 10. 25

콩, 캐나다, 말레이지아 등이다. 이러한 중국의 輸出單價는 日本產이나 韓國產에 비해 절반값도 안되는 상당히 낮은 價格이다.

3) 世界의 柑橘類 輸入 및 價格動向

1996년도 오렌지의 世界 총 輸入物量은 4,430천톤으로 전체 생산량인 64,448 천톤의 6.9%만이 去來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렌지의 최대 수입국은 독일로서 1996년 현재 전체 오렌지 輸入의 12.4%를 차지하여 551천톤을 輸入하고 있고,

〈표14〉 세계의 오렌지 수입 및 가격 동향

국 가	1996		1996(CIF가격기준) US \$ /톤당
	물 량(천톤)	금액(천US\$/톤)	
독 일	551 (12.4%)	348,268	632
프 랑 스	462 (10.4%)	313,501	678
영 국	319 (7.2%)	188,494	591
네 텔 란 드	311 (7%)	157,020	505
러 시 아	258 (5.8%)	109,686	425
사우디아라비아	254 (5.8%)	89,986	355
베 네 루 스 3 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249 (5.6%)	164,380	660
캐 나 다	202 (4.6%)	105,617	522
홍 콩	189 (4.3%)	160,323	848
일 본	154 (3.5%)	158,051	1,026
한 국	20 (0.4%)	20,800	1,046
기 타	1,461 (33%)	760,874	521
합 계	4,430 (100%)	2,577,000	582

- 자료 : FAO인터넷사이트 <<http://apps.fao.org:8080>> 1998. 10. 25

〈표 15〉 세계의 탄제린, 만다린, 클레멘틴, 온주밀감의 수입 및 가격 동향

국 가	1996		1996(CIF가격기준) US \$ /톤당
	물 량(천톤)	금액(천US\$/톤)	
오 스 트 리 아	42(2%)	33,879	807
베 네 루 스 3 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81(3.9%)	75,965	938
캐 나 다	80(3.9%)	85,802	1,072
체 코	45(2.2%)	28,913	643
프 랑 스	295(14.2%)	327,538	1,110
독 일	408(19.7%)	389,333	954
인 도 네 시 아	35(1.7%)	18,629	533
일 본	4(0.2%)	5,590	1,506
한 국	1	1,738	1,501
말 레 이 지 아	35(1.7%)	14,256	413
네 텔 란 드	111(5.4%)	98,499	895
폴 란 드	93(4.5%)	26,041	279
러 시 아	96(4.6%)	42,523	441
사 우 디 아 라 비 아	44(2%)	14,696	331
스 웨 덴	41(2%)	42,273	1,023
스 위 스	41(2%)	43,387	1,050
영 국	192(9.3%)	182,687	955
미 국	27(1.3%)	34,679	1,265
기 타	403(19.4%)	280,513	697
합 계	2,074(100%)	1,746,941	842

- 자료 : FAO인터넷사이트 <<http://apps.fao.org:8080>> 1998. 10. 25

다음은 프랑스가 462천톤을 輸入하여 전체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주요 輸入國으로는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네룩스3국(벨기에, 네덜란드, 류셈부르크), 캐나다, 홍콩 순으로 300천톤에서 200천톤 정도 輸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렌지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 動向을 살펴보면 1996년 현재 톤당 582US \$ 수준인데, 이 價格은 1994년 톤당 496US \$, 1995년 552US \$에 비하면 上昇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輸入價格이 높은 나라는 韓國이 톤당 1,046US \$로 가장 높고, 日本이 1,026US \$, 홍콩이 848US \$로 높은 가격 水準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입선이 상당部門 다소 單價가 높은 미국산을 많이 輸入하는데 따른 結果로 보인다. 이 외의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톤당 600US \$ 水準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톤당 355US \$로 우리나라의 1/3수준의 낮은 價格이다.

탄제린류(탄제린, 만다린, 클레멘틴, 온주밀감)의 1996년 현재 世界의 총 輸入物量은 2,074천톤으로써 전체 生產量 17,693천톤의 11.7%가 去來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렌지가 전체 生產量중에서 輸入物量이 차지하는 비중이 6.9%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교역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대 輸入國은 1996년 현재 오렌지와 마찬가지로 독일로서 408천톤을 輸入하여 전체 輸入物量의 19.7%, 프랑스는 295천톤을 輸入하여 전체 수입물량의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제린류(탄제린, 만다린, 클레멘틴, 온주밀감)의 輸入價格(CIF가격기준) 動向을 살펴보면 1996년 현재 톤당 842US \$ 수준인데, 이 가격은 1994년 톤당 694US \$, 1995년 790US \$에 비하여 상승한 價格 수준이다.

輸入價格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톤당 1,500US \$ 수준으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 1,265US \$,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이 1,000US \$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러시아 등의 輸入價格은 279US \$ ~533US \$로써 韓國에 비해서는 많개는 1/5~1/3,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1/3~1/2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作目班 發展過程과 現況

1. 作目班의 概念

1) 意 義

傳統的으로 韓國의 農村社會는 계, 두레 등의 協同組織이 存在해왔으며, 이들 組織은 農作業 過程에서 필요한 勞動交換 뿐만아니라 農村社會의 전반적인 協同을 違行해 왔다.

農村의 協同組織은 組織動機, 組織의 性格, 組織의 機能 등에 따라 여러 가지 類型으로 區分할 수 있는데, 먼저 組織動機에 따라 自生的 組織과 非自生的 組織으로 나눌 수 있다. 自生的 組織이란 住民의 自發적인 必要나 要求에 따라 외부의 直接적인 관여 없이 생겨난 組織인 反面, 非自生的 組織은 住民들 内部의 要求보다는 一次的으로 外部(機關)의 影響이나 의도적인 努力에 의해 成立된 組織을 가리킨다. 한편, 組織의 性格은 대체로 組織의 目標가 公式化되어 있고 意思決定 및 違行節次가 確立되어 있는가와 實際移行 程度에 따라 公式的 組織과 非公式的 組織으로 나누어 진다. 公式的 組織에서는 組織構造의 位階화와 業務分擔이 明示되어 있는 반면, 非公式的 組織에서는 엄밀한 규정이나 절차보다는 慣習 또는 慣行에 따라 運營되는 경우가 一般的이다. 그리고, 組織의 기능에 따라서는 情誼的 組織과 道具的 組織으로 나누어지는데, 情誼的 組織은 構成員들의 친교나 단합을 일차적인 目的으로 하고 그 活動範圍도 주로 構成員間의 관계에 한정된다. 이에 비해 道具的 組織은 이른바 利益集團으로서 構成員의 公동이해를 표출하고 달성하기 위해 單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問題를 公동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組織이다 1) <표16>

이상과 같은 組織유형분류에 의거해 보면, 協同組合의 内部協同組織으로서 作目班은 「道具的 非自生組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協同組合의 出現 배경은 組合員인 주민들의 要求에 따라 自生的 組織으로 出發하였고 利益集團으로서의 기능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地域 혹은 全國 單位의 연합체를 構成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協同組合은 「道具的 自生組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것

1) 홍동식(1996), 「농촌사회학의 이해」법문사, P.199 ~ 201

〈표16〉 農村組織의 類型

	情誼的(expressive)	道具的(instrumental)
自生的 組織	○ 情誼的 自生組織 (각종 契, 親睦團體, 취미단체 등)	○ 道具的 自生組織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각종 出荷組織 등)
非自生的 組織	○ 情誼的 非自生組織 (새마을청소년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영농회 등)	○ 道具的 非自生組織 (각종 協同組合)

자료 : 홍동식(1996). 「농촌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P.201

처럼 우리 나라의 協同組合은 自生的 기반을 確保하지 못한 채 위로부터의 전국적인 中央組織을 기반으로 農村 각 地域에 末端組織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아직도 官僚制的 垂直的 지휘감독체계의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道具的 非自生組織'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農協의 적극적인 育成에 의해 탄생하고 성장해 온 '作目班' 역시 '道具的 非自生組織'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러한 作目班은 1970년 이후 農協 組合員組織으로 育成해 오고 있는데 동일작목을 재배하는 반원 상호간의 相扶相助 그리고 營農의 科學化를 위한 영농기술의 導入 및 영농개선으로 農業生產性을 높히고 공동구매·공동판매 등 流通개선을 통하여 반원의 所得增大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組織된 產地流通의 核心組織으로서, 自然部落이나 경지집단별로 동일작목을 재배하는 영농주 또는 그 가족을 중심으로 「作目班」을 組織化하고 이를 農協事業과 連繫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탄생된 作目班은 그 동안 조직수 및 취급 物量面에서 놀라운 量的 成長을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組織的 活動 및 共同化의 수준에서는 미흡한 단계에 있으며, 地域別·作目別로 그 形態가 다양하여 일반적인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政府政策의 變化에 따라 作目班에 대한 역할 규정도 수시로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作目班의 성격도 不分明하게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作目班은, 農業生產이 상업화 되면서 특정 작목의 生產 및 流通過程에서의 經營合理化를 추구하는 중요한 作目別 生產者組織의 하나로서 등장하였다.²⁾

2) 최동근(1991).「농협의 작목반조직에 관한 연구」 건국대대학원 석사논문, p.5. 주우일 외(1993). 「작목반의 현장」 한국농수산물流通도매인협회, p.12.

따라서 作目班은 우리 나라와 같은 영세소농구조하에서 個別 農業經營의 限界를 극복하고 競爭力を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³⁾ 즉, 競爭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經營規模의 확대가 불가피한데, 個別農家가 境地規模를 확대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고, 따라서 作目班에 의한 農家의 組織化는 점차 그 重要性이 增大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이른바 「상업적인」⁴⁾ 반원으로 하고 있다.

작목반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는 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한 후 總會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입시에는 입회금과 平均지분에 해당하는 加入金을 納付해야 한다. 事業은 대개 다섯가지로 나뉜다. 共同生產(共同作業), 共同購買, 共同販賣, 共同出資, 技術情報 공유 등이다.

이들 가운데 農機械 보급확대로 個別農家가 單獨으로 필요한 作業을 할 수 있게 돼 共同作業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점차 活性化하는 추세다.

2) 機 能

農業經營에 있어서 經營規模擴大의 의의는 基本的으로 個別經營의 '內部經濟' 형성改善에 있다. 그런데, 소농이 지배적인 우리의 農業구조상 現實的으로 個別農家가 經營規模를 확대하는 内部經濟 形成에는 限界가 있다. 이러한 限界를 극복하기 위하여 主產地를 形成하고 이를 중심으로 技能的 組織體의 活動을 展開함으로써 소농의 限界를 극복하고 規模의 經濟를 形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生產者는 農協-作目班에 加入하여 조직적인 活動을 통해 個別經營을 補完하고자 한다. 協同組合-作目班을 통해 外部 經濟를 形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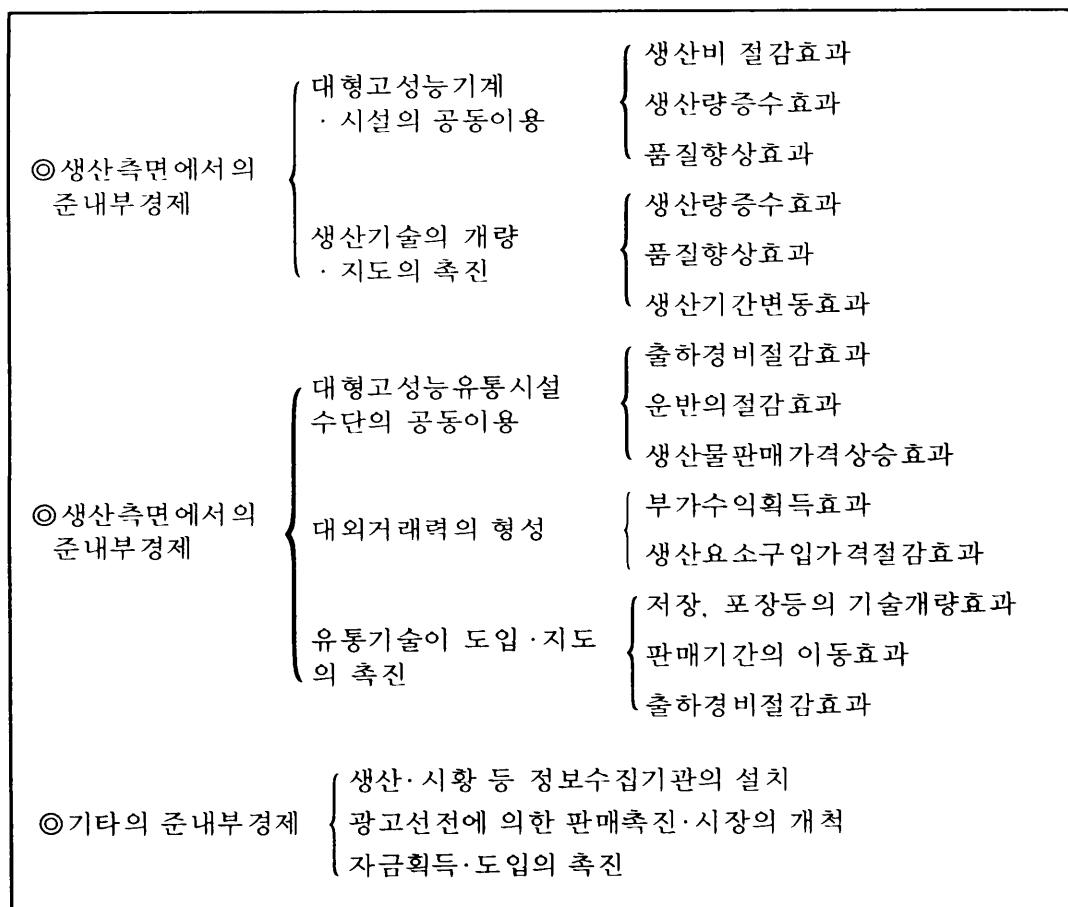
「外部經濟形成」이란, 예컨대 지도·정보기능의 形成, 生產組織化 技能形成, 共同利用施設의 설치기능 形成, 生產物販賣技能 形成 등이다. 이같은 個別經營 기능의 일부를 外部化 시킴으로써 效率性을 추구하고 더욱 고도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경제를 生產者가 적극 이용할 때 生產農家로서는 준 내부경제를 추구할 수 있다. <그림2>

3) 김준오(1997), 「작목반의 운영실태와 활성화방안」농협중앙회조사부, p.21.

4) 일반적으로 「상업적 농업」은 시장판매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농업'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여기서 '상업적인' 농업이라 함은, 우리의 농업이 '상품화율' (1965년 : 31.2%, 1975년 : 44.2%, 1985년 : 59.1%, 1995년 : 73.0%), 특히 과수·채소·축산 등 일본 환급작목의 경우는 상품화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자본주의적 농업과 유사한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상품화의 전진이 곧바로 이윤추구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적 농업 발전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

오늘날에는 개별경영의 자기완결성(3개별경영단위에서 生產과 販賣가 완결되는 것)이 점차 낮아지고 外部依存度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販賣·購買活動의 공동화). 그 일환으로 作目班을 통하여 개별경영을 보완하고 있는데, 作目班이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동일한 品目을 재배하는 농가로構成된 기능조직으로서 구성원 공동의 目的을 위해 生產過程에서부터 유통·가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共同事業(활동)⁵⁾을 展開하고 있다. 作目班의 組織化활동(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2>

<그림2> 作目班組織의 活動에 의한 經濟效果



자료: 강경선(2000) 「농업생산자조직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p.90

5) 작목반의 생산부문활동은 공동생산(joint farming) 또는 협동생산(cooperative farming)이라기 보다는 공동작업(joint farming)이나 생산협력(cooperative in farming)에 가깝다. 김준호(1997), 전제논문, p.43.

가. 科學營農

作目班의 3대 기능중의 첫째가 計劃하고 研究하며 농사를 짓는 科學營農이다. 반원은 매일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營農計劃을 수립해야 하며, 반원들의 營農計劃을 종합하여 作目班의 營農計劃書를 만들고, 이 내용은 농협의 事業計劃에 반영되어야 한다.

營農計劃 수립 후 1년간의 營農過程을 영농일지에 기록 維持하여 그간의 영농성과를 分析하여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반원들은 총회에서 영농기술을 토의함으로서 서로의 經驗과 技術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선진지 견학, 전문가 초빙교육을 통해 신기술을 공동 수용토록 한다. 그리고 공동육묘장, 共同事業場 등을 만들어 일부 생산과정을 협동화하고 시범포·전시포 등을 설치하여 농민들의 신기술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

나. 經營費 節減

作目班은 같은 작목을 經營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농기계를 비롯한 각종 營農資財가 비슷하며 필요한 時期도 비슷하다. 따라서 대형 농기계나 施設은 共同으로 설치하여 공동 이용토록 하고 一般資財는 시기별로 農協을 통하여 共同구입 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節約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資金과 일손도 共同으로 대처함으로써, 計劃적인 영농수행과 經費節減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 流通改善

作目班은 농산물계통출하의 기초조직이므로 農協의 유통정보를 활용하여 시기별 출하량의 조정은 물론 選別·包藏·貯藏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농협차량을 이용하여 出荷한다. 그리고 상표는 작목반명을 포함한 자체상표를 制定·附着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신뢰도를 높이고 반원들에게는 責任感을 갖도록 한다.

라. 작목별 재배에 있어 농가간 栽培技術을 통일해야 할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마. 組合所有의 선별 및 산지 집하시설의 우선적 利用으로 공동출하 기반조성을 한다.

바. 共同計算으로 농가 수취가격제고 및 流通費用 절감 등 실질적 共同出荷 이점을 實現한다.

2. 作目班 發展過程

作目班은 지난 1970년대 초부터 397개 단위농협의 하부조직으로 1,484곳이 組織되기 시작하여 식량증산·농가소득 증대 등 農業開發과 農촌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역으로 活動하여 왔고, 그후 「새마을작목반」으로 혹은 협동출하반으로 바뀌가는 過程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1980년대는 상업농 진전과 더불어 生產性 향상과 산지유통개선의 실천주체로서 큰 역할을 하여왔다. 1990년이후 일부 우수작목반이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組織管理에 애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作目班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生產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共同의 힘을 발휘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作目班은 지난 30여년간 政府政策에 의해 몇번의 改編 過程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는데, 그 동안의 發展方向을 요약해 보면 ① 친목단체 등 社會集團의 성격에서 利益集團의 성격으로, ② 식량작물위주에서 원예·축산작물위주로, ③ 生產부문중심에서 流通部門 중심으로 發展해 왔다는 것이다.⁶⁾ 그러면 한국의 1970년 이후 作目班의 發展過程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作目班 發展過程

〈組織 태동 및 확대기〉 : 식량작물 위주 → 協同生產, 증산중시

(1970~1976)

- 읍·면단위 합병추진(1969이후), 里洞單位 생산자組織 육성필요
→ 1970년도 里洞단위 협동회 하부조직으로 作目班 組織(1,484개)
- 새마을운동 본격화, 공동체적 영농의식 고취, 영농자금 지원
→ 조직수 급격한 증가 : (1973)3,458개 → (1976)12,028개
→ 식량작물(56.8%)이 주종, 商業的 영농은 큰 진전이 없었음.

〈組織整備기〉 : 쌀作目班 해체 → 상업적 영농 도입

(1977~1982)

- 정부의 협동조직체 일원화 推進(농림수산부고시 제2952호 1977.9.20.)

6) 강경선(2000)「농업생산자조직론」제주대학교 출판부 p.92.

- 새마을작목반 탄생 : 농촌진흥청의 「농사개량구락부」와 통합
- 쌀작목반 해체(새마을영농회로 흡수), 원예·축산중심으로 전환
- 정부의 作目班 내실화 추진
 - 부실組織정비 : (1977)15,000개 → (1982)6,647개
 - 作目班 활동수준에 따른 평가방법 도입(기초·일반·선진)

〈協同出荷班과 이원화〉 : 식량중심 增產農業 → 상업적 영농·진전
(1983~1991.6월)

- 소득작목(채소, 과일)의 生產集中으로 수급 및 가격安定對策 필요
 - 정부 주도의 협동출하반 육성 : (1983)4,830개 → (1990)12,425개
(生産보다 유통에 관심, 원예작물 중심의 共同出荷 적극 추진)
- 협동출하반 育成의 成果와 問題點
 - 성과 : 행정적 관심의 증대(자금지원 등) → 조직화성과 기여
 - 문제점 : 作目班과 지도체계가 이원화되어 지원효과 반감

〈作目班으로 일원화〉 : 農產物 수입개방 → 산지유통 競爭力 제고
(1991.6월 이후)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농림수산부 유통 27030-747 1991.6.13.)
 - 作目班과 협동출하반 통폐합 → 13,682개의 作目班으로 통합
- 농업의 國際化 · 開放化에 따른 생산자組織의 경쟁력 제고 필요
 - 조직의 규모화·専門化를 통한 경쟁력 강화책 지도
 - 쌀作目班 재조직(1993이후) : RPC와 연계, 생산비 절감 및 미질향상
- 신농정이후 영농조합법인 급증으로 생산자組織 이원화 재초래 우려

〈作目班 재도약 추진〉

農協은 1996년 9월, 作目班을 농산물 유통의 핵심조직으로 育成하기 위해 「作目班 재도약」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 주요 内容을 살펴보면 첫째, 作目班의 평가를 시·군지부 중심으로 改編하고 우수 作目班을 기초로 시·군 단위 생산자組織 연합회를 결성하도록 지도하는 등 作目班 組織을 재정비 한다는 것이다. 둘째, 生產 및 流

通의 전 단계에서 공동사업의 機能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지유통시설의 전이용 체계 구축과 규모화를 도모하고 우수作目班의 선별적 법인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셋째, 農協의 指導·支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作目班 육성 및 지도·지원 지침을 제정·시행하며, 계통 임직원의 생산조직 육성 마인드를 강화하고 우수組織에 대한 集中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 등이다.⁷⁾

3. 作目班 現況

농민組織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우리나라 農協에서 運營되고 있는 作目班은 '98년 말 기준으로 채소부문 8,581개, 과수부문 5,210개, 식량작물 3,889개, 축산부문 1,219개, 특작기타 1,641개로써 전국에 걸쳐 2만 540곳이 있는데 作目班원수는 51만호의 農家가 參與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협 조합원수의 4분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표17〉 작목반 유별 조직현황(기준일:1998. 12. 31)

(단위 : 개, %)

구 분	채 소	과 수	식량작물	축 산	특작기타	계
조직수	8,581 (41.8)	5,210 (25.4)	3,889 (18.9)	1,219 (5.9)	1,641 (8.0)	20,540 (100.0)
반원수	216,908 (42.6)	143,203 (28.1)	98,850 (19.4)	23,514 (4.6)	27,152 (5.3)	509,627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작목반 육성현황」 내부자료 1999

또한 作目班을 작물별로 살펴보면 채소류(41.8%), 과수(25.4%) 차지하여 채소류 과실류가 67%로 주류를 이루지만 식량작물(19%), 축산(6%) 등도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다. 發展단계별 組織現況을 보면 기초作目班이 6,257개로써(30.5%) 일반作目班이 7,217(35.1%) 선진作目班이 7,066개로써(34.4%) 우리나라 농협作目班 평균 반원수는 25명으로 나타났다.〈표17〉

전국 지역본부별 組織現況을 살펴보면 기초作目班 전국비율이 30.5%인 반면 제주도가 24.4%, 일반作目班 전국비율 35.1%인 반면 제주도 40.3% 선진作目班 전국비율 34.4%인 반면 제주도가 35.3%로써 제주도지역 作目班이 일반 作目班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제주도지역 作目班이 發展 可能性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표18〉

7) 강경선(2000) 「농업생산자조직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p.99~p.100

〈표18〉 작목별 농협중앙회 지역별·부별 발전단계별 작목별 현황

(1998. 12. 31현재)

구 분	조 작 수			반 원 수			정 영 규 모					
지역본부	기초	일반	선진	반수제	기초	일반	선진	부원수제	기초	일반	선진	경영체
경 기	901	724	731	2,356	13,897	13,086	16,200	43,183	174,63	151,447	115,441	441,501
강 원	343	416	509	1,268	4,940	6,846	11,807	23,503	139,329	42,158	30,249	211,735
충 북	355	485	489	1,329	6,728	9,933	12,891	29,552	49,52	14,169	26,645	90,325
충 남	773	1,239	3,285	14,477	24,768	30,858	70,103	304,56	769,191	82,580	1,155,926	
전 북	749	556	661	1,966	13,527	11,005	14,132	38,664	47,114	40,877	92,095	180,085
전 남	787	1121	995	2,903	19,520	33,485	38,658	91,663	556,351	100,300	60,963	717,623
경 북	1,314	1,463	1,065	3,842	34,696	42,156	33,797	110,649	89,203	93,308	51,037	233,548
경 남	619	653	934	2,206	18,466	20,423	33,243	72,132	858,375	32,791	97,413	988,578
제 주					3,589	6,931	7,550	18,070	5,939	6,894	7,618	20,450
부 산	52	48	19	119	1,382	1,055	510	2,917	1,078	51,002	891	52,971
인 천	65	65	79	209	1,218	1,403	1,895	4,516	2,32	14,374	2,539	19,225
서 울	21	18	5	44	409	519	96	1,024	557	5,216	82	5,855
울 산	62	39	29	130	1,131	1,323	1,077	3,531	60,532	3,268	1,482	74,282
제				133,980	133,950	172,933	202,714	509,627	2,028,068	1,325,003	569,034	4,192,105

자료 : 농협중앙회 「작목별 육성현황」 내부자료 1999.

〈표19〉 작목반 발전단계별 조직현황(1998. 12. 31. 현재)

(단위 : 개, %)

구 분	기 초	일 반	선 진	계
조직수	6,257 (30.5)	7,217 (35.1)	7,066 (34.4)	20,540 (100.0)
반원수	133,980 (26.3)	172,933 (33.9)	202,714 (39.8)	509,627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作目班 육성현황」 내부자료 1999

〈표20〉 작목반 주요품목별 조직수(1998. 12. 31. 현재)

(단위 : 개)

품 목 명	조 직 수	품 목 명	조 직 수	품 목 명	조 직 수
쌀	3,346	마늘	740	복숭아	536
감자	353	생강	147	포도	1,275
고랭지채소	129	수박	843	단감	374
김장배추	141	참외	720	감귤	573
상추	249	토마토	361	한우	897
당근	109	방울토마토	225	양돈	124
양파	340	딸기	726	표고버섯	231
건고추	587	오이	974	느타리버섯	581
풋고추	669	호박	317	화훼	468
꽈리고추	191	사과	1,329	기타	2,113
대파	104	배	768		
○ 반원수 : 510천명 ○ 평균반원수 : 24.8명				총 계	20,540

자료 : 농협중앙회 「作目班 육성현황」 내부자료 1999

〈표21〉 작목반 유별·발전단계별 조직현황(1998. 12. 31. 현재)

(단위 : 개)

구 분	채 소	과 수	식량작물	축 산	특작기타	계
기 초	2,103	1,486	1,634	489	545	6,257 (30.5)
일 반	3,099	1,848	1,307	451	512	7,217 (35.1)
선 진	3,379	1,876	948	279	584	7,066 (34.4)
계	8,581 (41.8)	5,210 (25.4)	3,889 (18.9)	1,219 (5.9)	1,641 (8.0)	20,540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작목반 육성현황」 내부자료 1999

〈표22〉 작목반 연도별·발전단계별 조직현황

(단위 : 개)

구 분	조직계(개)	발 전 단 계 별 조 직(개)		
		기 초	일 반	선 진
1991년	13,682	2,832(21%)	6,662(49%)	4,188(30%)
1992년	13,970	2,897(21%)	6,988(50%)	4,085(29%)
1993년	17,377	5,200(30%)	7,105(41%)	5,072(29%)
1994년	20,193	7,046(35%)	7,554(37%)	5,593(28%)
1995년	23,300	8,119(35%)	7,151(31%)	8,030(34%)
1996년	23,383	5,763(25%)	8,247(35%)	9,373(40%)
1997년	24,091	6,297(26%)	6,479(27%)	11,315(47%)
1998년	20,540	6,257(31%)	7,217(35%)	7,066(34%)

자료 : 농협중앙회 「작목반 육성현황」 내부자료 1999

〈표23〉 작목반 연도별·유별 조직현황

(단위 : 개, 천명)

구 분	조직계	유 별 조 직 현 황 (개)					반원수
		식량작물	과 수	채 소	축 산	특작기타	
1991년	13,682 (100%)	471 (4%)	3,276 (24%)	8,378 (61%)	411 (3%)	1,146 (8%)	340
1992년	13,970 (100%)	517 (4%)	3,367 (24%)	8,570 (61%)	444 (3%)	1,072 (8%)	341
1993년	17,377 (100%)	1,427 (8%)	3,653 (21%)	10,149 (58%)	955 (6%)	1,193 (7%)	441
1994년	20,193 (100%)	2,214 (11%)	4,487 (22%)	10,634 (53%)	1,424 (7%)	1,434 (7%)	506
1995년	23,300 (100%)	3,222 (14%)	5,042 (22%)	11,617 (50%)	1,758 (7%)	1,661 (7%)	568
1996년	23,383 (100%)	3,932 (17%)	5,335 (23%)	10,667 (46%)	1,712 (7%)	1,737 (7%)	558
1997년	24,091 (100%)	4,631 (19%)	5,394 (22%)	10,505 (44%)	1,669 (7%)	1,862 (8%)	567
1998년	20,540 (100%)	3,889 (19%)	5,210 (25%)	8,581 (42%)	1,219 (6%)	1,641 (8%)	510

자료 : 농협중앙회 「작목반 육성현황」 내부자료 1999

〈표24〉 작목반 연도별 작목반 성장추이

연도별	작목반수(개수)	반원수(천명)	평균반원(명)
1970	1,484		
1971	859	112	130.4
1972	942	139	147.6
1973	3,458	144	41.6
1974	7,029	253	36.0
1975	9,977	301	30.2
1976	12,028	372	30.9
1977	15,000	443	29.5
1978	14,492	433	29.9
1979	13,387	341	25.5
1980	10,742	274	25.5
1981	6,264	151	24.1
1982	6,647	149	22.4
1983	11,058	242	21.9
1984	17,416	367	21.1
1985	23,562	460	19.5
1986	14,094	309	21.9
1987	17,309	388	22.4
1988	17,416	389	22.3
1989	17,130	379	22.1
1990	16,758	370	22.1
1991	13,682	340	24.9
1992	13,970	341	24.4
1993	17,377	441	25.4
1994	20,193	506	25.1
1995	23,300	568	24.4
1996	23,383	558	23.9
1997. 11.	23,939	579	24.2

자료 : 농협중앙회 「작목반 육성현황」 내부자료 1999

유별조직 현황을 보면 채소류와 과수의 비중이 1998년말 현재 67% 점유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쌀作目班 재조직이후 식량작물 비중이 급속히 증가 (1993)8% → (1998)19%로 增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23〉

우리나라 作目班 연도별·발전단계별 組織現況(표22)을 보면, 선진조직수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조직이 계속적인 증가로 선진조직의 점유비는 기간중 〈1991~1998년 사이〉 4%증가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선진조직 점유비 : (1991)30% → (1993)29% → (1998)34%〉〈기초조직 점유비 : (1991)21% → (1993)30% → (1998)31%〉 기초조직은 조직수 및 점유비 모두 급속한 增加를 보이고 있다.〈표22〉

우리나라 作目班 연도별 組織現況을 보면(표23)

조직수 : (1991)13,682개 → (1998)20,540개(50%증가)

반원수 : (1991)340천명 → (1998)510천명(50%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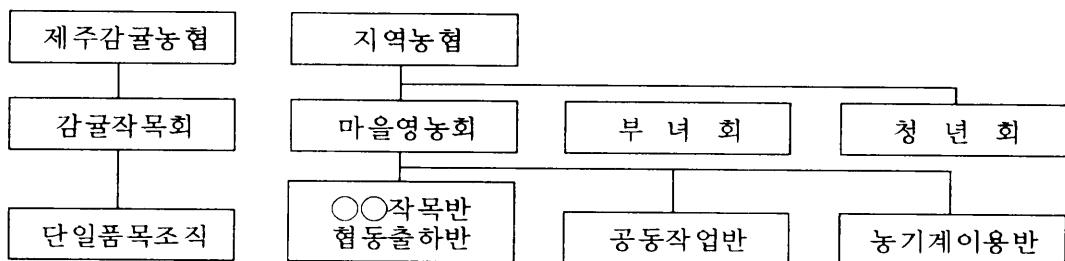
(반당농가수) (25명) (24명)

으로써 1997년까지 꾸준히 조직수와 반원수가 增加해 오다가 1998년되어 감소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8년부터 매년 농협·농산물검사소·행정기관이 합동으로構成하는 평가위원회에서 評價를 받아 기초조직, 일반조직, 선진조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유명무실조직이 整理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判斷되어 진다.

제4장 柑橘作目班의 運營實態와 問題點

1. 柑橘作目班의 組織形態 및 現況

1) 農協作目班(회) 組織形態



2) 性格

반(회)원의 자의에 의해 耘農의 협업화와 地域開發, 그리고 편익을 위한 지역성이 강한 자생 협동조직체로써 地域 및 組織내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공동이용施設의 設置 및 운영
- ② 공동기금의 造成 및 운영
- ③ 耘農기술의 도입 및 소요자재 공동구매
- ④ 共同販賣 및 상품성제고 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제주도 農·감협 組織의 柑橘作目班 現況

1998년 5월말 현재 제주도내 農·감협 柑橘作目班수는 총 594개에 반원수가 13,150명으로 류별로 보면 노지감귤 481개 組織에 11,811명이고, 施設감귤류가 86개 組織에 반원수 995명, 기타감귤류가 27개 組織에 344명으로 作目班원수가 제주도 柑橘재배농가 36,212농가의 36% 차지하고 있으며, 회원조합별로 보면 19개 地域農協이 총 합계가 349개 組織에 7,878명이며, 전문農協인 濟州柑橘農協이 245개 組織에 5,272명으로 濟州柑橘農協이 제주도 19개 회원農協과 전문農協이 합한 柑橘作目班의 4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25)

〈표25〉 회원組合別 柑橘作目班 組織現況(1998. 5. 31. 현재)
(단위 : 개, 명)

구 분	노지감귤		시설감귤		기타감귤류		계	
	조직수	반원수	조직수	반원수	조직수	반원수	조직수	반원수
제주감귤농협	212	4,901	28	317	5	54	245	5,272
지 역 농 협	제 주 시	33	945	2	40		35	985
	북제주군	79	2,136	7	87	4	51	90
	서귀포시	36	1,088	13	201	4	44	53
	남제주군	121	2,741	36	350	14	195	171
	소 계	269	6,910	58	678	22	290	349
회원농협 합계	481	11,811	86	995	27	344	594	13,150

자료 : 농협중앙회 「작목반 육성현황」 내부자료 1999

〈표26〉 제주柑橘農協 지사무소별 柑橘作目班 組織現況(1998. 5. 31. 현재)
(단위 : 개, 명)

지소별	노지감귤		시설감귤		기타감귤류		계	
	조직수	반원수	조직수	반원수	조직수	반원수	조직수	반원수
서귀포	15	327	4	97	3	36	22	460
중문	21	546	6	68			27	614
안덕	7	318	1	14			8	332
대정	10	238	5	53			15	291
한림한경	28	443	1	6			29	449
애월	12	583					12	583
중앙	7	184					7	184
제주시	22	562					22	562
조천	17	370					17	370
성산	24	503					24	503
표선	15	243	7	43			22	286
남원	21	348	3	26	1	6	25	380
위미	13	236	1	10	1	12	15	258
합계	212	4,901	28	317	5	54	245	5,272

자료 : 제주감귤농협 「작목반 조직현황」 내부자료 1999

〈표27〉 濟州柑橘農協 作目班 發展단계별 평균 반원수(1998. 5. 31. 현재)

선진작목반		일반작목반		기초작목반		계	
조직수	반원수	조직수	반원수	조직수	반원수	조직수	반원수
72	1,814	119	2,491	54	969	245	5,272
	25명		20명		17명		22명
29%		49%		22%		100%	

자료 : 제주감귤농협 「작목반 조직현황」 내부자료 1999

이중에 濟州柑橘農協 柑橘作目班 組織現況을 구체적으로 分析해보면(표26)에서 보는 것처럼 노지감귤 212개 組織에 반원수 4,901명이고, 시설감귤 28개 組織에 반원수 317명, 기타감귤류 5개組織에 5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柑橘農協 作目班당 평균 반원수는 22명인데 이를 發展단계별 평균 반원수를 살펴보면 선진작목반 평균 반원수가 25명, 일반작목반 평균 반원수 20명, 기초작목반 평균 반원수 17명으로 선진에서 기초작목반으로 갈수록 반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27〉

〈표28〉 濟州柑橘農協 선과장 운영作目班 組織의 경영여건(1998. 5. 31. 현재)

구 분	선과장 운 용 작목반수	단 계 별				반 원 수		작목반원 재배면적 (ha)
		계	기초	일반	선진	반원수	조직평균	
노지감귤	184	199	29	71	99	4,735	24	6,053
시설감귤	23	29	12	6	11	346	12	220
시설만감	1	5	3	0	2	54	1	35
기 타	0	2	1	1	0	27	14	39
계	208	235	45	78	112	5,162	23	6,347

자료 : 제주감귤농협 「작목반 조직현황」 내부자료 1999

〈표29〉 濟州柑橘農協 사무소별 발전단계별 作目班 組織現況(1999. 11. 30. 현재)

구 분	선진작목반		일반작목반		기초작목반		계		
	조직수	반원수	조직수	반원수	조직수	반원수	조직수	반원수	
사무소별	서귀포	12	237	6	114	10	203	28	554
	중문	11	267	14	261	4	86	29	614
	안덕	3	102	4	206	1	21	8	329
	대정	4	54	8	193	3	47	15	294
	한림한경	3	64	19	276	7	109	29	449
	애월	6	432	4	94	2	56	12	582
	제주시	9	276	12	215	2	97	23	588
	중앙			7	185			7	185
	조천	1	88	12	226	1	10	14	324
	성산	7	123	15	324	3	82	25	529
	표선	6	110	8	111	4	54	18	275
	남원	8	139	11	169	4	48	23	356
	위미	5	85	8	112	1	30	14	227
	13개소	75	1,977	128	2,486	42	843	245	5,306

자료 : 제주감귤농협 「작목반 조직현황」 내부자료 1999

〈표30〉 濟州柑橘農協 作目班 발전단계별 설립현況

구 분	설립년도 (조직년도)					
	1970~198	1981~1985	1986~1990	1991~1999	1996~199	계
선진작목반	12	10	7	23	10	72
일반작목반	25	23	28	27	16	119
기초작목반	8	2	4	7	23	54
계(점유비)	45(18.4%)	35(14.3%)	49(20%)	67(27.3%)	49(20%)	245(100%)

자료 : 제주감귤농협 「작목반 조직현황」 내부자료 1999

〈표31〉 濟州柑橘農協 사무소별 발전단계별 作目班 現況

사무소별	발전단계별		작 목 반 명
서귀포 지 소 (28개)	선진	12	하효, 신효, 서상효, 토평향귤, 동홍, 호근번영, 삼성, 보목, 자연농법, 법환시설, 서귀포하우스, 토평청견
	일반	6	새미, 효돈자연농법, 명진, 청보, 신효하우스, 하효대신
	기초	10	서귀포단감, 삼성단감, 호근샛별, 유진, 서귀포한라봉, 서귀포원제, 서귀포대륙, 사철, 서귀포네블, 제주영귤
중문지소 (29개)	선진	11	용홍, 염돈, 강정하우스, 대포, 대성, 중앙, 대농, 상예1리, 상예2리, 진홍, 상예수출단지
	일반	14	대천, 강서금감, 도순, 하원, 하원2리, 하원자연농법, 회수, 월평하우스, 중문, 중문하우스, 도순상수원, 현대시설, 개미, 월산
	기초	4	강정, 예래하우스, 하원하우스, 색달
안덕지소 (8개)	선진	3	감산, 사계, 안덕하우스감귤
	일반	4	창천, 화순, 덕수, 서광서감귤
	기초	1	서광동
대 정 출장소 (15개)	선진	4	신진, 대정하우스 감귤, 대정동부하우스, 대정서부하우스
	일반	8	안성, 보성, 인성, 신성, 평지, 월광, 모슬포하우스감귤, 한마음
	기초	3	삼다, 상하, 한라
한림한경 지 소 (29개)	선진	3	귀덕, 금능, 흥수암
	일반	19	차귀, 산양, 연화, 수룡동, 명이동, 저지수동, 정인동, 조수, 낙원, 한림, 협재, 협신, 명월, 월림제일, 한라, 상명, 금남, 비가림, 한수품
	기초	7	판포, 신명, 청수, 조수신흥, 문수동, 하나로, 한마음한라봉
애월지소 (12개)	선진	6	납읍, 상가, 용홍, 장전, 수출단지, 하가
	일반	4	수산, 신성, 어음1리, 금강
	기초	2	어도, 봉성
제주시 지 소 (23개)	선진	9	봉개, 농우, 광평, 도평, 해안, 광령1리, 고성, 금덕, 소길
	일반	12	오등, 노형, 용담, 이호, 제일, 한라, 성전, 우리하우스, 친송, 광신, 광령2리, 광령3리
	기초	2	대원, 황귤

사무소별	발전단계별	작 목 반 명	
중앙지소 (7개)	선진		
	일반	7	도련, 영평, 송우, 회천, 대진, 화북, 동진
	기초		
조천지소 (14개)	선진	1	신일
	일반	12	신안, 굴림, 제일, 양천, 농심, 협진, 선흘, 덕천, 한동, 황금, 신우, 원품
	기초	1	평대
성산지소 (25개)	선진	7	고성, 제일, 수산, 대왕, 한라, 신성, 성산일출하우스
	일반	15	종달, 대홍, 한마음, 식산봉, 신양, 수산2리, 온평, 온평일동, 온평제이, 신산, 난산, 흥진, 삼달1리, 남산, 명화
	기초	3	지미봉, 삼달2리, 그등애
표선 출장소 (18개)	선진	6	가시, 신진, 세화2리, 동백, 토산2리, 탐라하우스
	일반	8	진주, 금광, 하천, 한지, 한라원예, 표선감귤, 태양하우스, 냇기
	기초	4	세화1리, 청정하우스, 세원하우스, 영지하우스
남원지소 (23개)	선진	8	우수, 동보, 태홍2리, 신흥1리, 의귀, 농원, 탐라, 금성
	일반	11	남원1리, 태홍1리, 무도, 중앙, 태홍3리, 신흥2리, 승리, 수망, 한남, 흥일, 청견
	기초	4	월산, 신일, 하나로, 백록한라봉
위미지소 (14개)	선진	5	영등, 위미만감, 삼다, 위미청과, 대원
	일반	8	신례, 위미1리, 상미, 록영, 한남, 부홍, 위미청견, 상원
	기초	1	하례
합계 (245개)	선진	75	
	일반	128	
	기초	42	

자료 : 제주감귤농협 「작목반 조직현황」 내부자료 1999

農協은 作目班을 發展段階에 따라 기초·일반·선진의 3단계로 區分하고 있으며 作目班의 발전단계는 정해진 평가표에 의해 채점하여 70점미만은 기초組織, 70~84점은 일반조직, 85점이상은 선진조직으로 구분 평가하는데 그 동안 1996년 10월이후 시·군지부에서 組織整備를 통한 내실화 도모 차원에서 평가심사 機能을 강화하여 評價를 주관하고 있으며, 1998년 5월말 현재 활동중인 245개의 作目班은 대부분 1970년 이후에 設立되었으며, 1980년대에 설립된 作目班은 84개로 34.3%이며, 1990년대에 설립된 作目班이 116개로 47.3%로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신규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고 1991~1995년에 걸쳐 몇 년동안 作目班수가 급격히 增加하였고(1990:129개 → 1995:196개) 최근에 와서 증가 추세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표30〉

2. 柑橘作目班 運營實態

1) 柑橘作目班의 運營實態 調查概要

柑橘作目班의 운영실태 調査는 作目班 管理카드라는 조사표를 만들어 실시하였는데 우선 제주도에서 專門조합인 濟州柑橘農協 전 지사무소 作目班을 조사대상 作目班으로 選定하여 총 245개 作目班을 조사대상으로 決定하였다.

濟州柑橘農協 245개 作目班에 대하여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부록1〉에 의해 면접, 設問調查를 실시하였는데 調査內容은 다음과 같다.

- 組織 일반現況
- 共同施設 및 장비 보유現況
- 柑橘農協 이용실적
- 農協 및 정부지원 内容
- 자재부문별 공동구매실적
- 출하처별 공동출하실적
- 품질관리 活動
- 作目班원 명부
- 作目班 평가 改善사항

柑橘作目班의 運營實態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濟州柑橘農協 245개

전 作目班을 조합 직원을 통해 作目班 관리카드라는 양식을 조제 배부하여 직접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토록하여 作目班 관리카드를 총 245개 100%로 조사 作成되었으며, 작성된 관리카드를 中心으로 운영실태 結果를 분석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作目班 관리카드를 조사 작성하여 作目班의 운영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判斷되는 조합의 담당직원(주로 지도담당)으로 하여금 農協中央會에서 시달된 제주도 柑橘作目班 평가표에 의거 作目班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후 제주도 실정에 맞도록 作目班 평가표 改善사항을 파악하였으며.

作目班 평가는 1. 組織내실화(25점), 2. 공동事業活動(40점), 3. 규격출하 및 품질관리활동(35점) 등 3가지로 구분하여 100점 만점으로 실시하였다.(표32 참조)

〈표32〉 作目班 평가표(원예·특작품 목)

○ 作目班명 : 作目班 (반장 : , TEL :)

○ 평가자 확인(평가점수 : 점)

구 분	성 명	확인(서명)	구 분	성 명	확인(서명)
평가위원장			평 가 위 원		
평 가 위 원			평 가 위 원		
평 가 위 원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비 고
		점수	평 가 기 준	
1. 조직내실화(25) 가. 조직규모	5	○ 25명 이상(5점), 20명 이상(4점), 15명 이상(3점), 10명 이상(2점), 10명 미만(1점)		
나. 조직운영관리	5	○ 규약제정, 반원명부관리, 운영기록부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월례회, 총회, 기타	항목당 1점 (최고 5점)	
다. 작목반 및 조직장 수상경력	5	○ 협동조직대상(작목반 부문) (2점) ○ 이달의 영농조직상 (2점) ○ 군단위이상 기관장 수상 (2점) ○ 새농민상 수상 (1점) ○ 영농후계자 (1점) ○ 조합 자체수상 (1점)	최고 5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점수	평가기준	
라. 생산 및 유통 개선 교육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기술교육(농협교육원교육, 외부지도 기관 교육, 조합자체교육) (각 2점) ○ 선진지 견학, PC 등 정보화교육, 기타 작목반 교육 (각 1점) 	합산하여 최고 5점 (40%이상 참여 조건)
마. 공동기금조성 정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원당 작목반 공동기금액(예금 연간 평잔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천원 이상(5점), - 150천원 이상(4점) - 100천원 이상(3점), - 50천원 이상(2점) - 50천원 미만(1점) 	총기금액/ 반원수. 미적립시 “0”점
2. 공동사업활동 (40점) 가. 공동시설 확보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농기계, 수송차량, 간이집하장, 선과장, 공동 퇴비장, 공동육묘장, 공동창고 (저온저장고 포함), 기타() 	항목당 1점 최고 5점
나. 공동작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종, 공동방제, 공동육묘, 공동정식, 공동수확, 공동선별, 공동포장, 기타() 	항목당 1점, 최고 5점
다. 공동구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원당 평균 구매액이 조합원당 평균 구매액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이상(15점), - 120%이상(12점) - 90%이상(10점), - 60%이상(7점) - 60%미만(4 점) 	
라. 공동판매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원당 평균 판매액이 조합원당 평균 판매액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이상(15점), - 120%이상(12점) - 90%이상(10점), - 60%이상(7 점) - 60%미만(4 점) 	
3. 규격출하 및 품질관리 활동 (3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장소에서 공동선별 (5 점) ○ 작목반 자체 기준에 의한 개별선별(3 점) ○ 반원 개인별 기준에 의한 개별선별(1 점) 	합산하여 최고 5점
가. 선별 및 품질관 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검사원 확보, 매출하시 품질검사(5점) ○ 자율검사원 확보, 주기적 품질검사(3점) ○ 자율검사원은 있으나 활동 미미(1점) 	
나. 공동계산제 실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원의 70%이상 참여 (10 점) ○ 반원의 50%이상 참여 (7 점) ○ 반원의 30%이상 참여 (5 점) ○ 반원의 30%미만 참여 (3 점) 	참여인원 ÷반원수 ※미실시의 경우 0점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비 고
		점수	평 가 기 준	
다. 총 출하량 중 규격 출하비용	10		○총 출하량 대비 규격출하 비율 - 80%이상(10점), 60%이상(7점) - 40%이상(5점), 40%미만(3점)	규격출하량 /총출하량
라. 공동상표 사용	5		○시군단위 상표사용 (5점) ○읍면, 조합단위 상표사용 (4점) ○작목회단위 상표사용 (3점) ○작목반단위 상표사용 (2점) ○개별농가 단위 상표사용 (1점)	
(가점) ○품질인증 획득 ○작목반 수출참여	(10)		○품질인증 획득 비율 (5점) - 반원의 50%이상 획득 (5) - 반원의 30%이상 획득 (3) - 반원의 30%미만 획득 (1) ○작목반 수출실적 있는 경우 (1점)	품질인증 획득반원수 /반원수
(가점) ○안전농약 사용 기준 미준수 ○속박이 출하	△6		○영가년도에 농약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관 련 기관 단체로부터 적발된 조직 ○농협, 도매시장, 상인, 소비자 계통사무소,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불량품 발생 통보시	각각 감점 3점
점수 계	100			

2) 柑橘 作目班의 運營實態

제주감귤농협 감귤작목반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3〉 濟州柑橘農協 발전단계별 作目班원수 분포現況

구 분	발 전 단계별	작목반원 10명이하	11~15명	16~20명	21~30명	31~50명	50명초과	합 계
제 주 감 협	선 진	11 (15%)	12 (16%)	14 (19%)	18 (24%)	15 (20%)	5 (6%)	75 (100%)
	일 반	26 (20%)	39 (31%)	24 (18%)	23 (18%)	10 (8%)	6 (5%)	128 (100%)
	기 초	12 (28%)	9 (22%)	7 (17%)	9 (22%)	4 (9%)	1 (2%)	42 (100%)
	합 계	49 (20%)	60 (24%)	45 (18%)	50 (21%)	29 (12%)	12 (5%)	245 (100%)

濟州柑橘農協 선진작목반의 경우 21~30명으로構成된 作目班이 75개 作目班 중 18개(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작목반은 11~15명으로 구성된 作目班이 128개 作目班 중 39개(31%)로 일반작목반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기초작목반은 10명이하로構成된 作目班이 42개 作目班 중 12개(28%)를 차지하고 있다.〈표33〉

〈표33〉調査結果에 의하면 선진작목반에서 기초작목반으로 내려올수록 반원수 규모도 적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작목반에서 일반, 선진작목반으로 育成지도하기 위해서는 작목반원수도 21~30명이상의 水準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시급한 課題를 발견할 수가 있다.

〈표34〉濟州柑橘農協 規模別 作目班 分布現況

구 분	25ha이하	25~39	40~54	55~69	70~84	85ha이상
濟州柑橘農協	138	60	25	13	2	7
비 율	56.3%	24.5%	10.2%	5.3%	0.8%	2.9%

濟州柑橘農協 245개 作目班 규모별 분포현況을 보면 作目班당 作目班원 전체 柑橘재배 면적이 25ha이하인 作目班이 138개(56.3%)이고, 25ha~39ha가 60개(24.5%), 40~54ha가 25개(10.2%), 55~69ha가 13개(5.3%), 70~84ha가 2개(0.8%), 85ha이상 作目班이 7개(2.9%) 作目班으로 조사되었다.〈표34〉

본 調査結果에 의하면 대부분의 作目班 규모가 25ha이하이다. 흉년이 되는 해에 1ha에서 柑橘이 18톤 정도 生産된다고 상정할 경우 대부분 作目班의 생산량이 450톤 이하이며 전량 系統出荷를 할 경우 15kg상자로 30,000상자 정도이다. 따라서

〈표35〉濟州柑橘農協 作目班 發展段階別 共同施設 現況

구분	발전 단계별	집하장	간 이 집하장	저 온 저장고	선과장	창 고	사무실	기 타	계	
제주 감귤 농협	선진	75	4동 (575평)	8동 (820평)	5동 (325평)	59동 (549평)	11동 (753평)	11동 (171평)	23동 (850평)	121동 (8,984평)
	일반	128	7동 (1220평)	8동 (988평)	10동 (205평)	98동 (7819평)	4동 (430평)	10동 (85평)	30동 (908평)	167동 (11,655평)
	기초	42		1동 (80평)	1동 (14평)	18동 (1670평)	2동 (300평)	1동 (40평)	5동 (115평)	28동 (2,219평)
	계	245	11동 (1795평)	17동 (1888평)	16동 (544평)	175동 (1499평)	17동 (1,483)	22동 (296평)	58동 (1873평)	316동 (22,858평)

전체 245개 作目班 중 56.3%가 作目班이 영세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作目班 규모화를 위한 計劃을 수립하여 體系的으로 指導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作目班 발전단계별 공동시설 現況을 보면, 75개 선진작목반의 경우는 집하장 4동에 575평, 간이집하장 8동 820평, 저온저장고 5동 325평, 선과장 59동 5,490평, 창고 11동 753평, 사무실 11동 171평, 기타 23동 850평으로 총 121동에 8,984평이다. 作目班당 평균 면적은 120평 정도 되었다.

128개 일반작목반 共同施設 現況을 보면 집하장 7동 1,220평, 간이집하장 8동 988평, 저온저장고 10동 205평, 선과장 98동 7,819평, 창고 4동 430평, 사무실 10동 85평, 기타 30동에 908평으로 총 167동 11,655평이며, 作目班당 평균 면적은 91평 정도 되었다.

42개 기초작목반 공동시설 現況을 보면 간이집하장 1동 80평, 저온저장고 1동 14평, 선과장 18동 1,670평, 창고 2동 300평, 사무실 1동 40평 기타 5동 115평으로 총 28동 2,219평으로 作目班당 평균 면적은 52평 정도이다.

특히 일반작목반 중에는 선과장이 없는 作目班이 30개 作目班, 기초작목반 중에는 선과장이 없는 作目班이 24개 作目班으로 조사되었는데, 作目班 발전단계별 공동시설 現況(표35)에서 보듯이 일반作目班, 기초作目班 공동시설 現況이 극히 부족하므로 作目班 통합에 따른 固定資產 관리체계를 整理하여 指導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35)

〈표36〉 濟州柑橘農協 作目班 發展단계별 共同장비 現況

구 분	발전 단계별	선과기	수송차량	PC	FAX	포장기	결속기	지게차	콤베어	트렉터	기타
제 주 감 귤 농 협	선진	75	76	12	2	43	51	54	10	72	218
	일반	128	106	7	2	38	70	78	7	99	1
	기초	42	24	9		6	13	14	6	22	2
	계	245	206	28	4	87	134	146	23	193	228

作目班 발전단계별 공동장비 現況을 조사 집계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진작목반의 경우는 선과기 76대, 수송차량 12대, PC 2대, FAX 43대, 포장기 51대, 결속기 54대, 지게차 10대, 콤베어 72대로 기타 218대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작목반의 경우는 선과기 106대, 수송차량 7대, PC 2대, FAX 38대, 포장기

70대, 결속기 78대, 지게차 7대, 콤베어 99대, 트랙터 1대로 기타 8대를 보유하고 있다.

기초작목반의 경우는 선과기 24대, 수송차량 9대, FAX 6대, 포장기 13대, 결속기 14대, 지게차 6대, 콤베어 22대, 기타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作目班 공동장비 現況 조사 집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作目班 공동정산체제를 推進하기 위해서는 PC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PC가 부족하기 때문에 農協에서 作目班 공동장비 지원시 또는 공동정산 作目班부터 PC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작목반원 PC 교육 推進計劃을 수립하여 지도해 나가야 하겠다.〈표36〉

〈표37〉 濟州柑橘農協 발전단계별 作目班당 평균 共同購買實績

(단위 : 천 원)

구 분	발전단계별	비 료	농 약	일반자재	기 타	계
제 주 감귤농협	선 진	10,800	34,729	9,874	1,400	56,803
	일 반	8,157	26,913	5,070	604	40,744
	기 초	3,342	10,274	2,712		16,328

濟州柑橘農協 발전단계별 作目班당 평균 공동구매 實績을 보면, 선진作目班인 경우 56,803천 원, 일반작목반인 경우 40,744천 원, 기초작목반인 경우 16,328천 원이다.〈표37〉

〈표38〉 濟州柑橘農協 발전단계별 品質認證 作目班 現況

구 분	발전단계별	노 지 감귤	시 설 감귤	계
제 주 감귤농협	선진(75)	9개 (195명)	10개 (107명)	19개 (302명)
	일반(128)	2개 (47명)	5개 (47명)	7개 (94명)
	기초(42)			
	245개	11개 (242명)	15개 (154명)	26개 (396명)

발전단계별 品質認證作目班 現況을 보면 선진작목반 중 품질인증을 획득한 作目班이 노지감귤이 9개 作目班, 시설감귤이 10개 作目班으로 총 75개 作目班 중 19개

作目班으로 조사되었다.

128개 일반작목반중 노지감귤이 2개, 시설감귤이 5개 作目班이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기초작목반중에는 품질인증 획득 作目班이 전무하다.

또한 濟州柑橘農協 시설감귤작목반은 총 28개이며 반원수는 317명인데, 이중에 품질인증作目班이 15개에 154명으로 시설감귤류의 50% 이상이 품질인증을 획득한作目班이며, 시설감귤류 作目班은 고품질 向上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반면 노지감귤은 212개 作目班 중 11개 作目班이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지감귤 作目班은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앞으로 공동정산체제 기초단계로서 노지감귤 作目班에도 品質認證 획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품질인증 必要性에 대한 作目班단위 교육도 필요하겠단다.〈표38〉

〈표39〉 濟州柑橘農協 환경農產物 生產作目班 實態

농 협	작목반명	주 작목	조직 년수	반 원 수	재배 면적 (평)	작 목 반 상		실 천 단 계	품 질 인 증 농 수	농 법	연 간 출 하 량 (톤)	소 재 지
						성명	전화번호					
제 주 감 귤 농 업 협 동 조 합	한라감귤 작목반	감귤	1996	8	19,000	송병오	746-6318	무농약	1	유기 농법	150	제주시 도평동
	하원자연농법 작목반	감귤	1996	15	48,000	고응칠	738-0858	저농약	15	자연 농법	420	서귀포시 하원동
	염돈작목반	감귤	1994	12	60,000	허유황	739-2312	일반	12	자연 농법	500	서귀포시 대천동
	안덕하우스 작목반	하우스 감귤	1993	12	1,500	현봉옥	794-8087	일반	12	자연 농법	150	남군 안덕면 덕수리
	금성하우스 작목반	하우스 감귤	1998	11	12,000	강미길	764-1428	일반	11	자연 농법	114	남군 남원읍 태흥리
	탐라하우스 작목반	하우스 감귤	1998	10	15,000	김태준	764-0427	일반	10	자연 농법	162	남군 남원읍 태흥리
	서귀포자연농법 작목반	감귤	1998	11	42,000	이종현	732-9574	저농약	11	자연 농법	250	서귀포시 동홍동
	효돈자연농법 작목반	감귤	1998	15	57,000	강홍준	767-2089	저농약	15	자연 농법	250	서귀포시 하효동
계	8			94	254,500				87		1,996	

환경농산물을 生產하는 作目班의 실태를 보면, 전체 245개 作目班 중 8개 作目班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 農業은 국민 먹거리 확보와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農產

物 생산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된다.〈표39〉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이때부터 자원보전과 환경보호를 主張하는 민간 단체들이 등장한다. 1950년대 이전에 국가와 국제 수준에서 논의된 환경문제는 주로 천연자원의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오염과 관련된 문제는 적었다.

農業분야에 있어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가능한 農業(sustainable agriculture)」 개념이 導入되면서 환경보전적 技術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農村, 농업인 문제의 重要性이 동시에 強調되고 있다. 즉, 지역 자립을 위한 행정권력의 分散, 地域 중심의 환경관리, 農村地域社會의 활성화 그리고 가족농의 보호육성 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을 育成해 오고 있는데, 화학비료와 농약使用을 最小化하여 생산한 안전한 農產物로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해 주고, 消費者는 안전한 農產物을 생산하는 農業人의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늘도 살리고 땅과 살리고 물도 살리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所得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농업, 모두에게 利益이 되는 농업이 바로 친환경농업인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농산물이 WTO 개방체제 하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산 농산물과의 競爭에서 이길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人口가 많고 경지가 좁아 땅값이 워낙 비싼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경지를 넓힌다고 해도 가격경쟁력을 가지기는 몇몇 品目을 제외하고는 힘든 狀況이다.

친환경농업은 단순히 「유기농업」등의 특수 농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인 비료나 농약使用을 최소화하면서 작물양분종합관리(INM), 병해충 종합관리(IPM), 천적과 생물학적 技術의 통합이용 등 최첨단 農業技術을 이용하고, 윤작, 두과작물재배 등 흙의 生命力を 培養하는 동시에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모든 형태의 農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에서도 자연과 인간이 다시 하나로 태어나야 한다. 과학과 技術의 발달이 인간과 자연을 공존·공영시키는 方向으로 開發되고 活用되어야 할 때이다. 無限競爭의 WTO체제 하에서 한국적인 농업이 競爭力과 持續性을 가질 수 있는 길은 환경친화형 農業으로의 전환이다.

외국농산물과 차별화하여 品質競爭力, 안전성경쟁력, 流通競爭力으로 消費者를 감동시키고, 자녀들과 남편의 健康을 생각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한 우리 農產物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決定에 의해서 우리의 農산물이 供給되고 消費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農業의 핵심 경영체인 가족농이 경지면적 등의 規模를 확대하지 않고도 所得을 向上시키고 發展할 수 있도록 고품질 안전한 고가의 農산품 生產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다. 우리농정의 새로운 方向과 활로를 다름 아닌 친환경농업의 육성에서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의 확산 정착이 정부의 뜻만이 아니고,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을 生產해야겠다는 농업인의 自覺과 노력이며 소비자는 농업인이 애써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믿고 消費에 적극 동참할 때 친환경농업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져서 환경농산물 生產作目班 연합회를 構成하여 환경농산물 生產作目班 참여농가가 생산 出荷하는 農產物의 효율적인 品質管理를 기하여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地域별 환경농산물 生產 및 作目班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농산물 生產作目班 등록, 참여농가의 자격심사 및 생산농지 등록을 비롯하여 참여농가 生產過程에 대한 정기적인 현지확인 실시 機能 등을 부여하여 단계적으로 擴散될 수 있도록 指導해 나가야 하겠다.

〈표40〉 濟州柑橘農協 공동계산 실시 作目班

제주감귤농협	조사대상 작목반	공동계산 실시 작목반
	245개	3개

공동계산 실시作目班은 245개 作目班 중 3개 作目班으로 파악되었는데, 2000년 공동계산제 활성화 計劃을 樹立하여 공동계산제 추진을 위한 여건 造成 및 농협 임직원의 관심도 提高를 위한 조합단위 활성화 협의회를 開催하여 지소별 시범작목반을 選定하여 공동계산제가 정착될 때까지 사업분위기 造成과 사업결과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 보완 및 持續的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공동계산제를 처음 導入하는 作目班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시 사례별 추진요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동계산제, 이렇게하면 성공한다」라는 책자를 만들어 보급할 必要가 있다. 〈표40〉

〈표 41〉 濟州柑橘農協 5년이상 성장이 정체된 조직(기초組織)

조합명	개수	작목반명
제주감귤농협	25	벌감귤, 고수동감귤, 선진하우스감귤, 금광감귤, 표선감귤, 세원하우스감귤, 창천감귤, 감산감귤, 서광동리감귤, 신성감귤, 상하감귤, 삼다감귤, 봉성어도감귤, 봉성감귤, 위미하우스, 와산감귤, 와흘감귤, 영평감귤, 차귀감귤, 산양감귤, 청수감귤, 판포감귤, 한림감귤, 문수동감귤, 금남감귤

濟州柑橘農協에 있어서 25개 作目班이 기초작목반으로, 5년이상 성장 정체 組織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組織은 자체 정비계획을 樹立하여 정비 또는 통폐합 등으로 지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41〉

〈표 42〉 作目班 運營에 있어서 어려운 점

구분	계
불량감귤 통제곤란	38%
계통출하 및 공동계산실시 어려움	26%
작업조 동원곤란	14%
무응답	22%

作目班 運營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불량柑橘 통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38%로 최고 많았고, 다음으로 系統出荷 및 공동계산 실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26%, 선과장 運營시 작업조 동원곤란이 14%로 나타났고, 무응답이 22%로 나타났다.

이 結果에 의하면 작목반장 한 사람의 힘으로 불량柑橘 통제나 공동계산실시를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農協이 체계적으로 指導 計劃을 수립하여 이러한 문제점에 적극 개입하여 실질적인 작목반 지도에 임해야 하겠다. 〈표 42〉

〈표 43〉 作目班 運營에 따른 改善点

구분	계	고유상표정착으로 가격경쟁 우위	대형선과장 설치	추가투자	공동출하 및 공동계산강화	자율검사 강화
비율	100%	33%	29%	17%	13%	8%

作目班 運營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개선할 점으로는 고유상품 정착으로 價格競爭 우위가 33%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형선과장 設置가 29%, 추가투자가 17%, 共同出荷 및 공동정산 강화 13%, 자율검사강화 8%로 나타났다. 〈표43〉

〈표44〉 소규모 作目班의 부분적 統合에 대한 見解

구 분	계	25ha이하	25~39ha	40~54ha	55~69ha	70~84ha	85ha이상
찬 성	85.6%	96%	92%	90%	77%	80%	79%
반 대	12.6%	4%	4%	8%	23%	17%	21%
무응답	1.5%	-	4%	2%	-	3%	-

소규모 作目班의 부분적 통합에 대한 의견을 보면 25ha이하 소규모 作目班에 있어서는 統合에 대하여 찬성하는 作目班이 96%, 반대가 4%이고, 25~39ha 규모의 作目班에 있어서는 통합에 찬성하는 作目班이 92%, 반대 4%, 무응답 4%이며, 40~54ha 규모의 作目班에 있어서는 통합에 찬성하는 作目班이 92%, 반대 8%, 무응답 2%, 55~69ha 규모의 作目班에 있어서는 통합에 찬성하는 作目班이 77%, 반대 23%, 70~84ha 규모의 作目班에 있어서는 통합에 찬성하는 作目班이 80%, 반대 17%, 무응답 3%, 85ha이상 규모의 作目班에 있어서는 통합에 찬성하는 作目班이 79%, 반대 21%로 조사되었다.

소규모 作目班의 부분적 통합에 대한 見解를 전체적으로 집계해 보니 찬성하는 作目班이 85.6%, 반대 12.6%, 무응답 1.5%로 調査되었다. 〈표44〉

3. 柑橘作目班의 問題點

- 組織내실화 부문에서 組織규모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반면에 組織운영관리에서 운영기록부 作成이나 事業計劃書 작성, 고정자산 명세표 작성 作目班을 찾아 볼수가 없었고, 作目班단위 生產技術指導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 共同事業 活動면에서는 선진작목반이 공동시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반면에 일반, 기초는 공동사업 시설이 부족한 면을 發見할 수가 있었다.
- 공동장비 現況에서 살펴보면 선진작목반은 공동장비가 양호한 반면에 일반, 기초작목반은 선과기 조차도 보유하지 못한 作目班이 많은 것을 發見할 수가

있다.

- 規格出荷 및 品質管理 활동면에서는 선별 및 品質管理 활동은 양호한 반면에 공동계산제 실시 作目班이 전체 245개 作目班 중 3개 作目班만 실시하고 있었고, 品質認證 作目班 現況을 살펴보니 전체작목반중 26개 作目班 밖에 품질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여 앞으로 선진작목반을 중심으로 品質認證 획득 및 공동계산제를 실시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겠다.
- 환경농산물 生產 作目班 栽培實態를 파악해보니 전체 作目班 중 8개 作目班이 환경농산물 作目班으로 調查되었는데 반원수는 94명으로 품질인증 농가수는 87명으로 전체 5,272명 작목반원중 극히 미흡하다는 것을 發見할 수가 있다.
- 42개 기초작목반중에 25개 作目班이 5년이상 정체조직인 기초조직으로 계속 남아있어서 구체적인 整備計劃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 할 수가 있었다.
- 作目班 運營에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 불량柑橘 통제가 곤란하다가 38%, 계통출하 및 공동계산실시 어려움이 26%, 작업조 동원곤란이 14%로 계통출하시 品質管理活動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發見할 수가 있었다.
- 作目班 운영에 따른 改善點으로 고유상표 정착으로 브랜드화가 33%, 대형선과장 設置운영이 29%로 앞으로 品質管理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作目班에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 소규모 作目班에 대한 부분적 통합을 찬성하는 意見이 85.6%로 통합에 대한 의견에 소규모 作目班 일수록 절대적으로 比率이 높았고, 앞으로 부분적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方案 및 計劃이樹立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4. 農產物 流通환경 變化와 作目班의 대응課題

1) 農產物 유통환경의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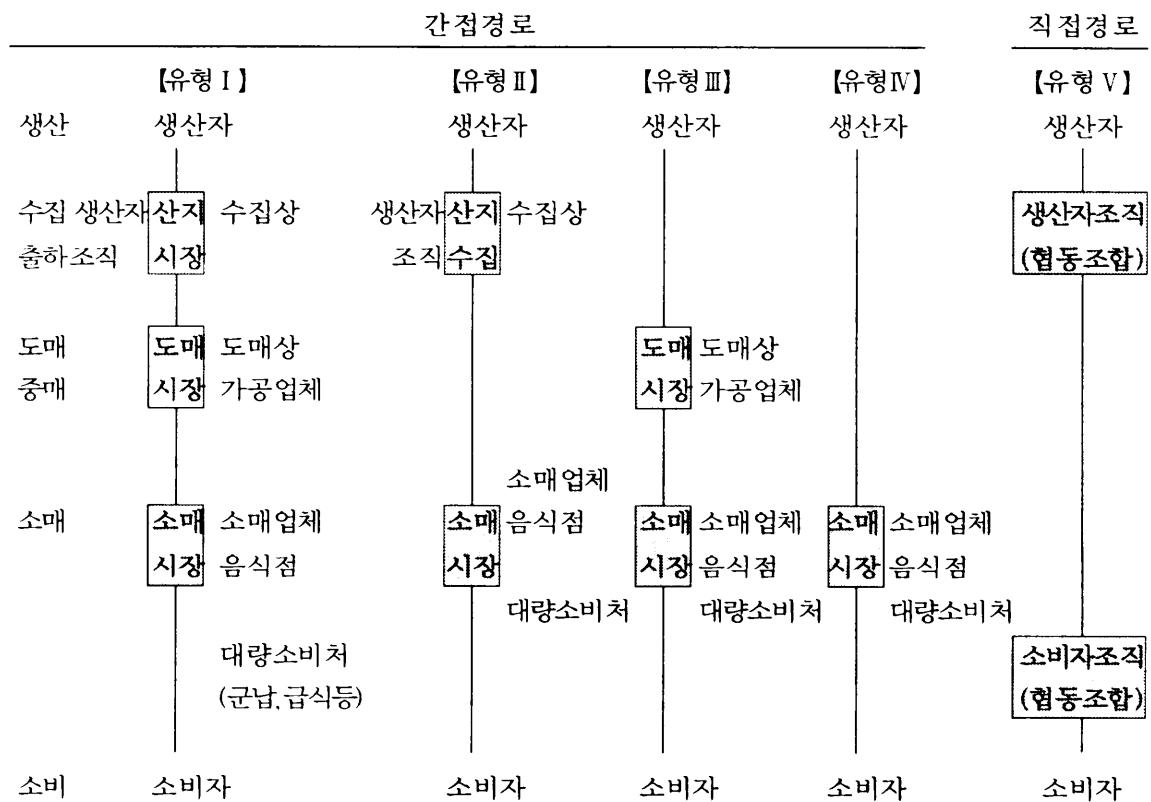
가. 農產物 유통단계의 축소

상업농 발달과 원격지 도시 소비자의 증가에 따라 수집상, 도매상, 소매상 등 전문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중간상인의 개입으로 늘어났던 유통단계가 수직적기능 통합

에 따라 다시 단축되는 추세로 반전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번성하고 있는 소비자 대형유통업체(할인점, 물류센터 등)가 급속도로 확산됨으로써 「소매유통업체 중심 유통경로」라는 새로운 양상의 유통경로가 전면에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산물의 유통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표45〉와 같다.

〈표45〉 농산물 유통경로 유형



〈표45〉에 나타난 유형별 농산물 유통경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유형 I, II, V에는 생산자조직(협동조직, 영농법인, 기타)이 관여하고 있다.
- ② 유형 I, III은 도매시장을 거치는 시장유통이라 할 수 있으며, 유형 IV, V는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시장외 유통이라 할 수 있다.
- ③ 수집·출하단계의 산지시장에는 산지공판장, 산지의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이 포함된다.

- ④ 직거래 경로에는 생산자(조직)들이 소비지의 일정지점에서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주말시장, 통신판매, 직거래, 택배 등이 포함된다.
- ⑤ 벤더(납품업체)는 도매단계에 포함되며, 금후 도매상과 산지수집상들이 유통업체의 전문벤더로 활동하게 된다.
- ⑥ 할인점이나 회원제 도매클럽(MWC)등 대형유통업체(신업체)는 도매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나 소매단계의 유통기구에 포함한다.
- ⑦ 생산자조직을 통한 출하는 감협, 농협, 영농법인, 기타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⑧ 농가의 개별출하에는 수집상판매(포전매매 포함) 산지시장출하, 도매시장(소비자 공판장)출하, 도매상위탁 소매점위탁, 직거래(도로변판매, 주말장터 등) 등이 포함된다.

나. 대형소매점 주도 流通構造의 전환

영세규모의 소매점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에 있어서는 영세소규모의 생산자로 구성된 시장의 경우에는 집·분하 기능을 담당하는 도매상의 시장지배력이 강했으며, 소수의 과점적 메이커가 시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리점, 직영점 등을 둔 메이커 주도의 유통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미국의 경우 1920년대부터 大量購買와 大量販賣를 추구하는 각종 형태의 연쇄점이 등장한 데에 이어 1950년대 후반에는 셀프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슈퍼마켓으로의 전환, 1970년대에 들어서는 식품, 비식품, 약품 등 다양한 결합을 지닌 할인점 형태로 발전함으로써 재래의 家族經營 위주의 소형전문 소매점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선진국의 변화추세가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농산물 및 유통서비스 시장개방과 함께 외국 선진유통업체들의 국내 진출을 수반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다. 消費者 購買行動의 變化

도시화, 핵가족화, 소득향상, 자동차문화의 補給, 냉장고의 보급, 주부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식생활 패턴이 신선식품보다는 가공식품과 외식, 조리食品 중심으로 이행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종래와 같이 채소, 과실, 육류, 생선 등의 專

門 小賣店을 찾기보다는 수퍼마켓이나 할인점 등에서의 일괄구매(one-stop shopping) 형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消費者 구매행동의 變化가 소매업의 재편성을 가져오는 기본적인 계기를 이루게 된다.

라. 都賣市場의 相對的 위축과 市場외 유통의 擴大

일본, 한국, 대만 등은 중간상인 주도의 농산물 유통관행 아래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영도매시장제도를 도입하고 위탁·경매방식의 거래제도를 통해 농산물 유통을 개선한다는 정책방향을 추구한 반면,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찍이 1930년대경부터 유통기능의 수직적 통합추세와 중앙 집중적 유통구조의 지역분산형으로의 전환에 따라 도매상의 기능이 약화되는 대신 생산자 및 소매업체들이 기능 다양화가 진전되어 왔다.

최근 들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시장외 유통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며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원칙을 이루는 위탁·경매방식을 벗어나는 매취거래, 상대수의 매매, 선취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등 도매시장제도의 위축과 시장외 유통의 확대라는 커다란 여전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에서도 도매시장이외에 다양한 유통경로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유통여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마. 農產物 및 流通서비스市場 開放에 따른 市場競爭의 심화

1998년 중반이래 국민경제의 개방체제 이행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의 추세가 가속화됨으로써 우리 농산물 시장개방의 더 한층의 가속화가 우려되는 변수들이 잔뜩 도사리고 있다. 또한, 자본자유화 일정에 따라 국내유통시장이 점진적으로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왔으며 1996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 소매점포수와 매장면적규제가 완전 철폐되면서 선진외국유통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적극 推進됨으로써 각종 소매업체간의 격심한 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2) 農產物 流通體系의 變化 展望

유통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農產物 消費地流通의 變化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소비자 슈퍼마켓이 대형화, 체인화 되고 있으며, 가격파

괴형 할인매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유통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일이다. 농산물 유통체계 변화요인은 크게 소비, 생산, 정부, 기술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개별적 혹은 상호 연관되어 農產物流通體系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農產物 유통체계의 變化展望을 살펴보면,

첫째, 農產物 輸入開放과 유통 서비스시장 개방이 아울러 이루어진 새로운 상황에서 農產物市場에도 다양한 판매전략과 유통경로가 비교적 단순한 유통구조는 획기적인 변혁을 맞게 될 것이며, 산지와 소매업체간의 직거래 또는 해외 Sourcing 등이 중요한 유통경로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둘째, 소매단계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는 農產物 및 식료품 販賣業體의 規模化, 체인화가 급속히 전개될 전망이다. 슈퍼마켓의 규모화, 체인화와 더불어 가격파괴형 신업체가 식품소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업체들이 다점포화를 전개하면서 대형슈퍼마켓과 함께 農產物 소매유통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산지단계에 있어서는 산지의 주산지화와 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유통측면에서 생산자단체(감협, 농협)을 통한 共同出荷가 확대되고 출하가 규모화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산지유통시설의 확충으로 산지단계에서의 標準規格出荷와 상품의 브랜드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지수집상의 기능은 약화되고 생산자단체의 출하조직과 청과물 포장센터나 대형선과장 등을 중심으로 한 生產者團體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집상의 기능은 약화되고 생산자단체의 출하조직과 청과물 포장센터나 대형선과장 등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단체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넷째, 농산물 유통경로를 (표45)와 같이 5가지의 유통경로로 구분할 경우 기존의 「유형 I」 중심의 유통경로에서 「유통 II」와 「유형 IV」의 형태로 진행되어 중간 유통단계인 도매와 소매기능이 대형 소매유통업체로 통합되는 형태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유통업체는 그동안 백화점과 재래시장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최근 유통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서부터 할인점 업체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체의 성장이 급속하다가 1990년대말과 2천년대 초의 고도성장기를 거친 다음에

는 부동산 문제로 인한 땅값부담으로 저성장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유통업체들이 도산하고 업체들간 인수·합병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째,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농산물은 할인 신입태에 대규모로 공급되는 저가의 농산물과 전문점에 공급되는 고품질 농산물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발달할수록 표준화·규격화된 대량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산지 유통기반 즉, 생산자조직의 공동선별, 출하와 농산물 포장센터가 중요해지게 될 것이며, 차별가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정품종(부지화, 하루미 등) 고품질 상품이 각광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해보면 농산물유통을 담당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생산자단체(감협, 농협)와 유통업종사자 등 민간부분이므로 유통개선정책의 효과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전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주도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성격의 유통시설확충 지원과 표준규격화, 항만시설의 확충 등 유통조성을 담당하고 산지유통 및 소비자유통기능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 유통전문기업의 창의력과 경영책임 아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作目班의 運營實態 結果 作目班의 對應 課題

作目班 活動은 共同販賣가 중심 사업이기 때문에 농산물 流通環境의 변화는 作目班 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流通市場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에 進出하고 국내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農產物 流通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小賣市場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8년부터 개장된 물류센터는 2001년까지 전국에 11개소가 설치될 예정인데, 물류센터는 2004년에 농산물 유통의 23%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농림부 추정) 生產農家가 물류센터나 大型流通業體에 출하하기 위한 方法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개별農家 또는 作目班에서 산지農協을 통해 出荷하는 방법
즉 산지농협의 流通施設인 포장센터나 선과장에서 수집, 선별, 포장 등을 담당하는 方法

둘째, 산지 作目班에서 직접 출하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 作目班 단위에서 선별·포장을 擔當한다. 또한 農協의 산지 유통시설이 부족하고 농산물 流通過程에서 산지농협의 수집·선별·포장 기능이 미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물류센터나 대형유통업체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作目班 직접出荷」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判斷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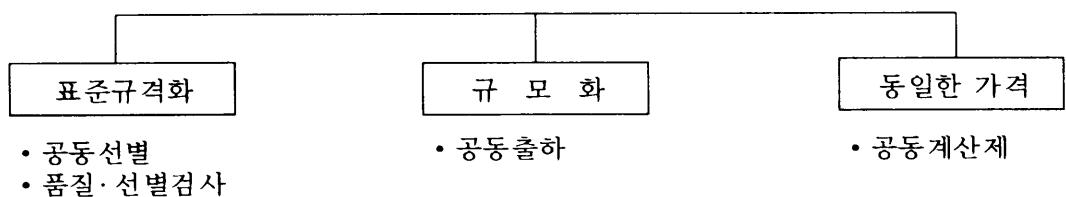
그런데 作目班에서 물류센터나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標準規格化 (포장규격화+등급규격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기존의 공판장에서처럼 농가별 경매방식으로 출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作目班은 다양한 農產物을 동일한 價格으로 출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作目班이 이와 같은 유통체계 변화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 ① 출하農產物의 標準規格化를 확립하고
- ② 作目班 단위로 물량을 모아 출하단위를 大量化하며
- ③ 공동계산제를 통해 동일한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출하농산물의 표준규격화를 위해서는 作目班에서

- ① 선별·포장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농산물을 共同으로 선별하여 출하하거나
- ② 農家가 개별 선별·출하한 農產物에 대하여 철저한 品質検査를 하여 출하해야 한다.

〈그림3〉 물류센터 및 大型流通業體 出荷 條件



〈그림3〉에서 보는 바와같이 작목반이 물류센터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조건이 공동계산제를 실시하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공동계산제 실시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계산(pooling)이란 다수의 개별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주별이 아닌 등급별로 구분하고 관리·판매하여 그 등급에 따라 비용과 대금을 평균하여 농가에 정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일정한 기간내에 출하처나 출하시기에 따른 판매가격의 차이에 불구하고 총 판매대금을 등급별 출하물량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text{농가별 배분금액} = \frac{\text{등급별 판매대금} - \text{판매제비용}}{\text{등급별 출하물량}} \times \text{농가의 등급별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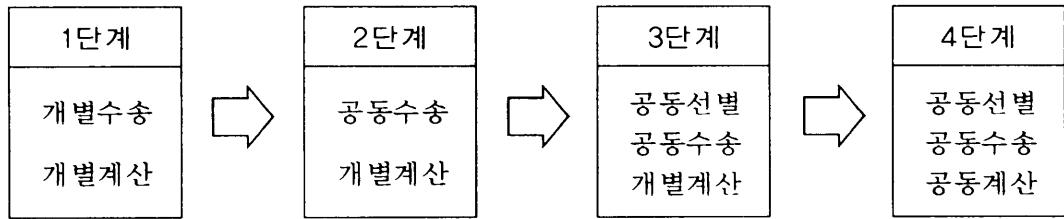
공동계산제 도입 필요성 및 발전단계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영업력을 높여주고,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수취가격이 높아져
 - 定量, 定時, 定質, 定價공급이 가능하다.
 - 定量 : 일정한 수량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빨리 높일 수 있다.
 - 定時 : 업체에서 원하는 날짜에 납품이 가능해짐. 특히 물건이 잘 팔릴 경우 업체에서는 더 많은 물건을 요구하나 개인별로는 이에 한계가 있다.
 - 定質 : 선별작업이 공동으로 이루어져 속박이를 할 수가 없으며, 공동선별을 하지 않더라도 선별기준을 철저히 지키게 됨으로 품질이 일정하다.
 - 定價 :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 정가에 의한 거래가 가능하다.
 - 조직단위 공동상표 사용으로 소비자 지명도를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킬수 있다.
 - 개별출하에 비해 엄격한 선별과 등급화로 상품성 향상된다.
 - 시장에서의 가격교섭력을 높여 주어 수취가격 제고로 연결된다.
 - 일정한 품질 규격의 상품을 일정량 매일 납품해 주면 유리한 가격을 지불하겠다는 대형백화점이나 유통업체의 요구 수용 가능하다.(직거래)
 - 도매시장 출하, 운송계약, 선도금 등 유리한 거래조건 실현된다.
 - 또한 물량공급이 많아지고, 수취가격이 높게 되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게 되어 판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 규모화에 의한 경제성을 들 수 있다.
 - 수송비 등 유통비용 절감 될 수 있다.
 - 물량이 많아지면 한 차를 싣고 가더라도 공실율이 적어져 수송비가 절감되고, 패렛트 출하가 가능해져 상하차비 등 유통비용이 절감된다.
 - 유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상품성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농가별 구분없이 등급별로만 거래를 하게 되므로 1회 거래물량이 많아져 거래와 상품분류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되고, 경매시간도 단축되어 상품성 저하가 방지될 수 있다.
 - 견본거래와 통명거래가 가능하다.
 - 판매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어 수취가격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시장특성에 따른 상품 출하가 가능해짐 : 서울 가락동 시장, 지방 도매시장 등 시장특성에 따른 상품별 구분 출하가 가능하다.
 - 농산물가격은 출하시장과 출하시기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쉼지어 동일 시장내에서도 경매시간대에 따라 가격차 발생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받게 되므로 가격변동과 위험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 실질적인 출하조절이 가능하고, 수급안정을 기할 수 있다.
 - 판매를 위한 생산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 공동계산을 하게 되면 농가 개인별 생산과 수확에 대한 정보습득이 가능하다.
 - 출하조절과 수급안정으로 연계할 수 있다.
 - 이러한 정보는 조기출하 또는 억제출하 등 자율적인 출하조절로 연결된다.
 - 공동생산과 수확, 그리고 공동계산 등 공동작업에 의하여 형성된 협동의식은 개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주고, 전국적인 수급조정도 가능케 한다.
- 농협의 판매사업을 체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 공동계산제에 의한 부가가치 제고를 들 수 있다.
 - 규모화된 물량으로 새로운 상품과 브랜드 창출이 가능해지고 유통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시장에서 높아진 인지도와 브랜드 등을 활용하여 수취가격을 높일 수도 있고 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그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조합의 수익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는 작목반 단위의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여전히 갖추어지면 조합별 공동계산제를 실시하여 산지농협의 브랜드에 의한 출하를 하여야 한다.
- 판매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사업이 활성화 된다.
 - 공동계산제를 하게 되면 상품의 질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할 수밖에 없음 : 공동으로 비료를 구입하여 공동으로 시비체계를 정착시켜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산지농협의 판매사업 뿐만 아니라 구매사업까지 확대되어 경제사업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
- 금융에 바탕을 둔 판매사업에서 협동에 바탕을 둔 판매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 지금까지의 농협 경제사업은 자금에 바탕을 두어 왔는데 고금리 시대하에서 저금리의 농사자금을 빌려주고, 이것을 활용하여 경제사업을 신장하여 왔는데, 이제는 저금리 시대에서는 이러한 자금에 대한 메리트도 적어지고 수요도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 협동에 의한 새로운 판매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농민과 농협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시장경쟁의 시대, 개방화의 시대, 시장을 상대로 농민들이 구매와 판매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한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의 협동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고, 그 씨앗이 바로 공동계산제이다.

※ 공동계산제 발전단계



앞에서 제시된 공동계산제 도입필요성과 발전단계를 기초로 하여 공동계산제 도입시 전제요건, 추진시 고려사항 및 세부 추진절차(예)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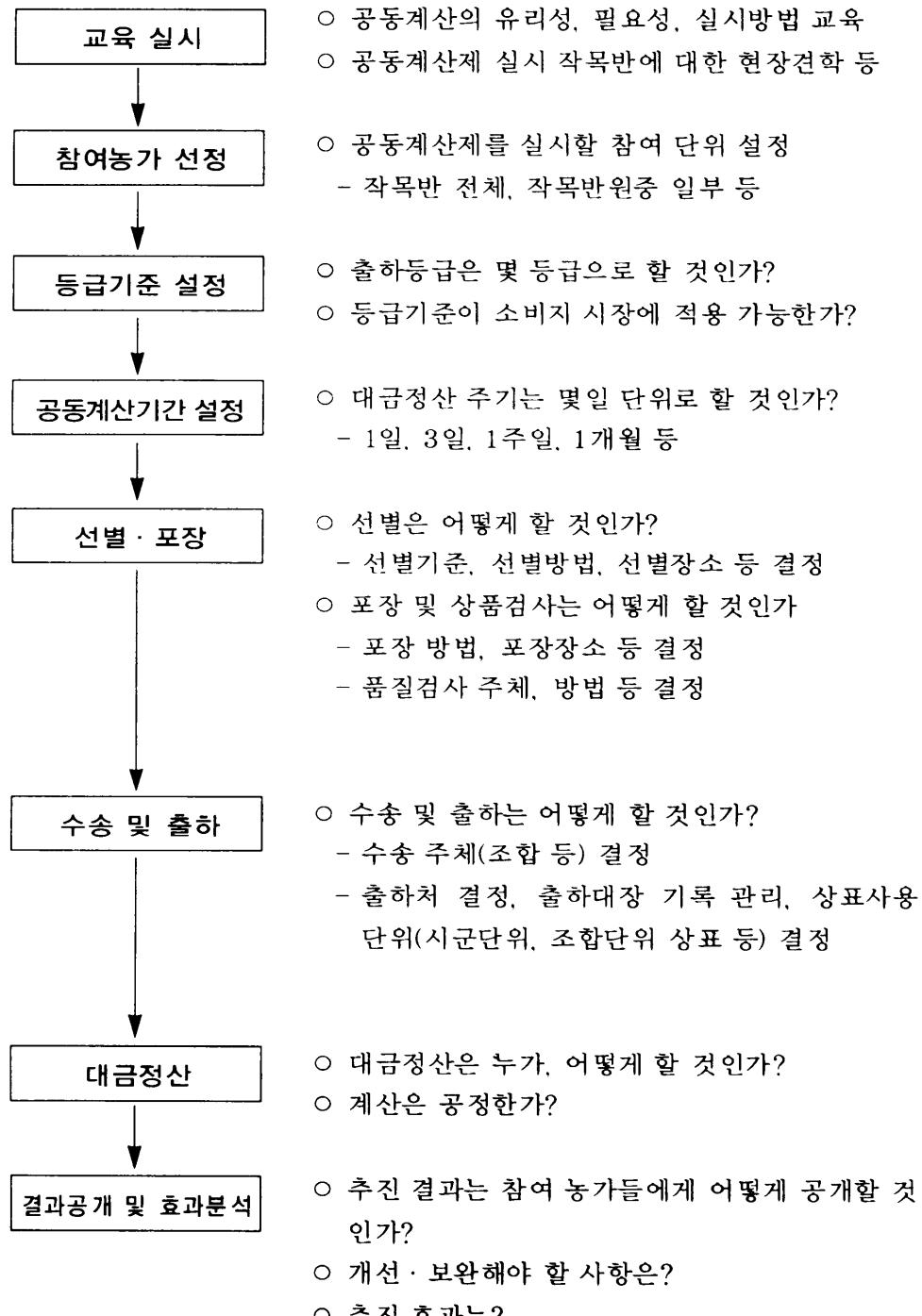
□ 공동계산제 도입의 전제요건

- 농협과 작목반, 그리고 작목반원간의 신뢰관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 공동계산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서로간의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며
- 또한 농협직원이나 작목반원 중에서 리더쉽이 강한 리더가 있어야 하며,
- 대농민 봉사 등 혁신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공동계산제 추진시 고려사항

- ☞ 공동계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참여농가에 대해 업무의 공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농가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 ☞ 이를 위해 ① 공동계산 기간 ② 적용구역 ③ 등급기준 등의 설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세부 추진 절차도(예)〉



第5章 柑橘作目班의 活性化 方案

作目班에 대한 指導·支援의 미흡한 상태에서 農協出荷만을 勸誘한다면 手數料 收入만을 올리려 한다는 不滿이 야기되고 農協利用은 定着되지 못할 것이다.

農協이 競爭力 強化보다 유리한 販賣를 위해 作目班과 共同努力하고 生產·販賣全段階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면 작목반의 發展과 더불어 農協事業에도 積極的으로 參與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조사된 작목반 운영실태 결과를 중심으로 柑橘作目班의 活성화 方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農 협의 역할측면에서

1. 營農計劃의 農協事業 反映

- 작목반(농가)의 營農計劃書 作成을 지도·지원하고 이를 農協 事業計劃에 적극 反映해야 하며, 未反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작목반에 說明, 理解를 구해야 되겠다.
- 營農計劃書는 작목반의 活動을 效率的으로 指導·支援할 수 있는 貴重한 基礎資料가 됨은 물론 計劃營農의 실천 결과에 대한 評價와 反省의 指標로 活用할 수 있고, 영농계획의 조합사업 反映은 농협사업에 대한 작목반의 關心과 自發的인 參與를 誘導하는 기점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2. 資金支援擴大

- 農業競爭力 強化는 물론 農協利用度 제고 측면에서도 施設現代化·營農規模擴大·품종갱신·상품성 향상 등에 따른 資金需要에 부응하여 支援規模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 자금지원 대상 選定에 있어서도 종전의 나누어 먹기식 方式에서 벗어나 농협의 지원 타당성 분석에 기준하여 選擇的·集中的 支援 方式이 되어야 하다.

3. 農產物 出荷에 있어서 農協의 役割 強化

〈上品性 向上〉

- 農產物도 好은 값을 받기 위해서는 品質이 均一한 것을 大量생산하여 去來交涉力を 確保하고 聲價를 높여야 한다.
- 이를 위해 農協은 生產·出荷組織의 規模化와 동일품종의 재배를 권장하며 작부체계·토양관리·방제·시비등 生產技術을 통일해 나가도록 指導·支援을 강화해야 한다.
- 또한 규격 包裝材의 開發 보급과 統一된 기준에 의한 철저한 選別, 공동상표 개발, 品質認證制의 定着 등을 통하여 도매시장이나 소비자 거래처와 消費者의 信賴를 얻을 수 있도록 指導해 나가야 한다.
- 포장품의 品質 均一化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品目特性 등을 감안共同育苗場이나 共同選別場의 設置 運營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

〈出荷處 開發〉

- 農協은 작목반이 보다 有利한 곳에 販賣할 수 있도록 市場의 特성 파악이나 출하처에 대한 情報蒐集 活動을 적극 전개함과 동시에 거래처 결정의 주요 요인인 價格과 信用度에 대한 비교 分析資料를 提供하는 등 출하처 개발에 있어서 농협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4. 資材 購買에 있어서 農協의 市場交涉力 強化

- 農協의 영농자재구매 공급과정에서 가장 隘路가 되고 있는 要因은 附加價值稅問題인데, 작목반이 業者로부터 직접 購買할 경우 農協보다 부가세 정도만큼 싸게 供給하는 事例가 많기 때문이다.
- 농협은 業者의 시장교란행위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農業 經營費 절감을 통한 競爭力提高를 위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용 자재 등에 대하여 附加價值稅 零細率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農政活動을 지속적으로 展開해 나가야 될 것이다.
- 農協이나 中央會는 작목반간 또는 계통농협간 상호 購買情報교환, 연대하여 發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資材流通에 대한 調查研究와 더불어 資材

產業에의 農協參與를 적극 검토하는 등 市場交涉力 確保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5. 販賣業務 인력보강과 專擔體制 구축

- 작목반 육성과 판매사업의 효율적인 連繫 推進을 위해 專門農協은 작목반 指導業務와 販賣業務를 統合하여 분장하고 나아가 販賣業務 從事職員의 補強 運營이 필요하다.(91말 현재 전국평균 판매업무 종사인원 : 1.7명)
- 또한 主產品目에 대해서는 專擔 職員을 배치(例 : 菜蔬係·果樹係 等) 해당 작목반의 指導·育成과 생산된 농산물 販賣處理까지 一貫되게 수행하는 專擔體制의 構築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

6. 作目會의 育成

- 농협은 輸入 農產物과의 競爭 등 농업주변 여건 변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재의 마을단위 小規模작목반을 확대하여 작목회 조직으로 育成해야 한다.

- 作目會 類型

- ① 聯合班 : 동일 작목을 재배하는 2개 이상의 작목반이 獨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연합한 조직
 - ② 統合形 : 기존 작목반 2개 이상을 해체·통합한 조직
- 작목회의 육성과정에서 예상되는 長短點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長點

- ① 기술협동·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과정에서 大規模화의 利益實現 可能
- ② 여러마을에 분산된 동일작목 재배 농가의 組織化 可能

(2) 短點

- ① 會員數가 많고 여러 마을에 분산되어 있어 작목반에 비해 人的結合力이 약하고 회원간 意思調整·統一이 어려워 진다.
 - ② 작목회가 生產·販賣活動에 그치지 않고 流通施設 또는 事務室을 설치하고 管理職員을 고용할 경우
- 施設資金에 대한 이자·감가상각비·직원인건비 등의 壓迫으로 회원농가

의 배분 뜻이 적게 되고 결국은 失敗할 소지가 많으며

- 농협과의 施設投資 重複으로 한정된 資源의 浪費 등 投資效率을 떨어뜨릴 수 있다.

③ 특히 작목회 조직이 經營體化 되어 農協을 利用하지 않고 獨自의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農協의 구매·판매사업과 競合될 소지가 있다.

○ 위의 관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작목회 育成에 있어서는 廣域化 組織으로의 이행에 따른 組織內的인 機能強化 문제와 組合의 離脫을 事前에 방지하고 組合事業과 작목회 活動과를 效率적으로 連繫시킬 수 있는 方案 摸索이 필요하다. 또한

○ 農協 離脫을 사전에 防止하기 위해서는

- ① 작목회를 經營體로서 보다는 活動體 조직으로 육성하고
- ② 事務室이나 管理職員은 농협의 시설·직원을 이용토록 하며
- ③ 작목회장 活動費 補助의 검토와 더불어 작목회 任員이 組合의 대의원·이사 등이 되도록 指導하여 組合運營에 參與토록 하고
- ④ 과도한 共同基金 造成을 止揚토록 지도하며
- ⑤ 농협이 生產에서 販賣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서 積極的이고 實質的인 지도·지원기능을 強化해 나가야 한다.

○ 人的結合力 측면에서는 統合型보다 聯合型 조직유형이 바람직한데

- 統合型 조직의 경우 인적결합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각 마을 단위로 代表者를 選任하여 해당 소집단의 意思調整·統一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運營體系가 필요하다.

7. 作目班 組織의 整備 및 電算프로그램 改善

○ 실태조사에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전혀 없는 작목반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組織을 정비하지 않으면 육성·관리 차원에서 물적·시간적으로 낭비가 많으므로 이러한 조직을 조속히 整備해야 한다.

- 포장재 共同購買, 共同輸送 등 작목반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共同事業조차 하고 있지 않은 작목반이 적지 않은데, 이처럼 活動이 없는 작목반은 과감히 整理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작목반을 조속히 整理하여 전산을 통해 작목반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 조사 과정에서 반원, 설립 연도, 기금 등 각종 계수 입력상의 오류가 발견되었고, 변경사항이 입력되지 않은 작목반도 다수 發見되었다.
- 또한 현재보다 더 많은 情報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새로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입력항목은 共同施設, 주요 공동사업 실시 여부, 작목반의 연간 生産量(액), 연간 구매액, 농협 계통구판매 실적, 고정자산(금액) 등을 추가로 작목반 관리카드에 삽입해야 하겠다.
 - 1개 작목반에서 유사한 여러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목반의 品目은 복수 등록이 가능하도록 改善하고
 - 施設栽培와 노지재배는 같은 품목이더라도 生產方式과 流通經路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해야한다.
- 전산등록의 正確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목반 전산입력 가이드를 발간하여 배부 및 교육을 實施해야 한다.
 - 전산등록 확인 및 신규등록은 농협은 시·군지부, 감협은 본소 책임하에 실시해야 한다.

8. 作目班 評價基準 再構成

- 현행의 작목반 평가기준은 작목반의 발전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전면적인 再檢討가 필요하다.
 - 품목 유별로 평가기준을 다시 作成하여
 - 評價基準에는 항목별 共同事業의 실행 여부, 공동 구·판매 비율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새로운 평가기준을 근거로 작목반에 대한 支援을 選別적으로 해야 하고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기초, 일반, 선진의 등급 외에 새로운 등급(예: 시범 작목반)을 새로이 만들고 이 작목반에 지원을 集中시켜야 한다.
 - (가칭) 시범작목반은 共同計算制를 목표로 育成하고 이 작목반의 등급심사는 지역본부 내지 중앙본부에서 직접 하도록 한다.

- (가칭) 시범작목반은 보다 자세한 現況을 파악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會員組合은 이 작목반을 모델로 벤치마킹을 적극 推進한다.

9. 作目班 운영활동 자가진단표 作成 체계적으로 指導

- 작목반장이 소속작목반의 운영상황을 직접진단하여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작목반원 스스로가 改善方案을 강구하여 현수준보다 한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변모하고자<부록Ⅱ>에 기준하여 작목반 운영活動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작목반의 역할측면에서

1. 유능한 組織指導者의 발굴 및 養成

- 國際化 ·開放化에 직면해서 국제적 농산물 수출입상들과 대항해서 생산자들의 입지를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능한 조직지도자 발굴이 중요하다.
- 組織的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조직지도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指導者는 하루아침에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計劃에 따라 養成하고 教育하여야 가능한 과제인 것이다.

그러면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의 발굴과 교육 養成方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능한 組織指導者의 발굴

- 세상의 많은 일의 성공과 실패는 그 일과 관련된 사람, 특히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리더에 따라 좌우된다. 작목반 조직의 성패도 어떤 속성을 갖춘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작목반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의 지도자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어느정도 지녀야 하는바 조직지도자의 특성으로 첫째, 推進力 둘째, 自信感과 적극적 사고 셋째, 事業에 대한 장기 參與와 끈기 넷째, 온건한 모험심 다섯째, 失敗를 수용

하는 태도 여섯째, 자신이 세운 목표와의 競爭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特性을 지도자로서 모두 지녔다 해도 그 자질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앞서 제시된 것들은 주로 개인이 성격상 또는 행동방식상의 특징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첫째, 전통적인 몰입과 결단 둘째, 팀의 구성 셋째, 栽培作目에 대한 지식 요건들도 갖추어야 한다.

② 유능한 指導者 교육의 強化

- 유능한 지도자와 조직원의 育成을 위해서는 수준높은 農業분야의 지도자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분석한 結果에 의하면 적절하고 성공적인 共同事業 전략이 뚜렷이 제시되고 시장여건이 밝게 전망되며, 좋은 지도자와 더불어 작목반원들의 학력과 경력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經營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작목반 조직을 活性化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농과대학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에 대한 현장위주의 농업교육 훈련이 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국제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첨단 생산기술의 전수, 작목반원으로서의 직능향상 방안, 영농자로서의 비전과 경영능력 제고 그리고 리더쉽의 향상들을 위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작목반의 자구노력 및 의식전환

- 오늘날의 농업은 과거와 같은 일차적인 생산만이 아니라 「생산→가공→판매→서비스」라는 일관경영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일관경영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효율적인 규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설립된 대부분의 작목반이 작목반원수에서 조차 취약하기 이를데 없다. 물론 작목반원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영세농이 재결합하여 규모화를 통한 협업과 분업의 이익을 추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작목반원을 확보하면서 적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목반의 자구노력 및 의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행정 및 연구기관의 역할측면에서

1. 農業技術 指導 強化(고품질 生産技術 지도 강화)

- 農產物 輸入開放등으로 深化되는 競爭與件下에서 작목반은 消費者가 원하는 高品質 農산물 生산을 위한 技術의 需要是 계속 增加될 것이며 작목반의 이러한 技術 需要에 효과적으로 副應할 수 있도록 農협뿐만 아니라 行政 및 研究 기관에서 農業技術 指導 機能을 더욱 強化시켜 나가야 하겠다.
- 農協의 現地 技術指導는 미흡한 段階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行政 및 기술센터 와 연계해서 고품질 生産技術은 작목반 育成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要素의 하나 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 現實的으로는 우선 農協은 관내 獨농가중에서 技術指導 能力이 있는 農家를 작목반의 指導者가 되게하여 작목반원간 生産技術의 平準化가 이루어 지도록 指導해 나가고
 - 또한 農協은 작목반과 협의, 必要한 技術이 무엇인가를 把握하고 이를 指導 할 수 있는 專門家를 초빙, 교육을 하거나 先進地 見學·해외연수·새농민기술·대학 교육 등의 기회를 늘려 나감으로써 작목반원의 技術力 向上에 寄與 토록 적극적인 努力を 기울여야 한다.
 - 한편 農협은 주산품목에 대한 專門 農業技術指導 人力을 별도로 養成하거나 新規로 採用하는 등 現地 技術指導 體系를 구축함으로써 品目別로 專門化되고 地域別로 細分化되어 가는 多樣한 영농기술 需求를 充足시켜 나가야 한다.

2. 공동계산제 및 환경농산물 생산 실시 작목반 집중지원

〈共同計算制(POOLING)導入〉

- 販賣代金까지 共同計算하는 작목반은 그리 흔치 않으나 共同出荷의 진정한 意義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共同計算制의 도입이 필요하다.
- 共同計算은 ① 시장별 출하량 조절에 의한 收益의 極大化 ② 개별농가의 危險分散 ③ 상품성 향상과 공정가격 형성 촉진 등 個別計算에 비해 많은 有利點이 있기 때문이다.

- 共同計算制는 ①반월 상호간 信賴가 두텁고 ②농산물의 等級 規格化와 檢查制 度가 확립되어 있는 조직부터 導入하되 공동계산제의 유리성에 대한 教育이先行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계산의 담당 主體로는 현실적으로 農協이 더 바람직하다.
- 실태調査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共同計算制 및 環境農產物 生산 작목반은 매우 적은 실정이므로 현재의 작목반으로는 물류센터 등에 출하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리고 작목반에서도 이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農協은 우선 標準規格化와 共同計算制 및 환경농산물 生產에 대한 必要性에 대하여 작목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그리고 農협은 共同計算을 推進하고 있는 作目班이나 참여반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 예를 들어 共同計算에 참여하는 작목반원에 대해 이자율 引下, 자금지원 확대, 수수료 환원, 포장재 보조금 支給 등의 우대조치를 취하고, 작목반이 공동계산 등에 필요한 流通施設을 設置하는데 조합 및 행정이 적극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작목반을 指導함에 있어서 발전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段階에 맞는 적절한 지도·지원을 함으로써 作目班 발전 誘導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第6章 要約 및 結論

WTO 출범과 더불어 우리 柑橘產業은 농산물 시장과 流通市場의 개방으로 위협과 발전의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또한 외국의 대형유통업체들이 한국시장에 속속 상륙하였거나 준비중에 있다. 지구촌 市場開放이라는 큰 흐름속에서 우리農業은 국민 먹거리 확보와 환경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차제에 우리농산물의 競爭力 向上을 기하고 무분별한 輸入農產物과의 차별화를 위해 유통사업 전반에 걸친 運營革新과 制度改革이 요구되고 있다.

生産段階에서는 안전농산물 생산과 저온유통체계를 시급히 構築하고, 유통부문에서는 효율화를 통한 물류費用의 節減과 상품성 향상을 통한 수취가격 제고 및 作目班 운영활성화에 모든 역량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유통사업은 사업의 다양성과 특수성으로 事業推進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농협 임직원들의 전문성과 풍부한 사업경험이 요구되고 있다.

作目班은 농가의 組織化를 통해 영세한 개별 농업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1980년대이후 流通部門을 규모화함으로써 농가의 市場競爭力を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25년 동안 政府政策에 의해 몇번의 再編過程을 겪으며 發展해왔다.

農協은 作目班을 발전단계에 따라 기초, 일반, 선진의 3단계로 구분하고, 지도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동안의 발전단계별 작목반수를 보면 기초 및 일반작목반은 감소하고 선진작목반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流通市場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이 大型流通業體가 국내에 進出하고 국내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1998년부터 개장될 예정인 물류센터는 2001년까지 전국에 1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고 2004년에는 농산물 유통의 23%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國內 流通環境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작목반이 물류센터나 대형유통업체에 農產物을 직접 출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① 出荷農產物의 標準規格化(공동선별·품질선별 검사)
- ② 작목반 단위로 물량을 모아 출하단위 규모화(공동출하)

③ 共同計算制를 통해 동일한 價格出荷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農產物 流通環境變化에 적극 對應하여 이러한 작목반의 과제를 해결하고 작목반 활성화 방안을 3가지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농협의 역할측면에서

1. 營農計劃의 農協事業反映
2. 資金支援擴大
3. 農產物 出荷에 있어서 農協의 役割 強化
4. 資材 購買에 있어서 農協의 市場交涉力 強化
5. 販賣業務 인력보강과 專擔體制 구축
6. 作目會의 育成
7. 作目班 組織의 整備 및 電算프로그램 改善
8. 作目班 評價基準 再構成
9. 作目班 운영활동 자가 진단표 作成 체계적으로 指導

◆ 작목반의 역할측면에서

1. 유능한 組織指導者의 발굴 및 養成
2. 작목반의 자구노력 및 의식전환

◆ 행정 및 연구기관의 역할측면에서

1. 農業技術 指導 強化(고품질 生產技術 지도 강화)
2. 공동계산제 및 환경농산물 생산 실시 작목반 집중지원

결론적으로 作目班이 중심이 되어서 유통마진을 극소화시키고 消費者들에게 최저가격으로 봉사하며 流通을 생산자조직이 일괄적으로 정착해서 협상능력을 제고시키며 안정된 가격에 高品質의 農產物을 공급할 수 있을 때 대외 競爭力은 제고된다. 그리고 작목반 조직이 해당 농산물의 생산적인 면에서만 效率性을 제고시킬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市場開拓과 소비자들의 滿足感을 제고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生產者들의 수익성 제고는 물론 生產者組織의 活性화도 촉진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문헌

- 강경선 “지역농업의 조직화에 관한 연구” 「사회발전연구」 제2집
제주대 사회발전연구 1986
- 강경선 “농업생산조직에 대한 연구” 「제주대 논문집 사회과학 제12편」 제주대학교
- 강경선 “시설감귤 작목반 활동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열대 농업연구」 제13집 1996. 12.
- 강경선 「농업생산자 조직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 강지용, 고성보 「수입오렌지가 제주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소비자의 반응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1998
- 강지용 외 「감귤진흥 장기발전계획 연구보고서」 제주대학교 1991.
- 강지용, 강경선, 고성보 외 「시설감귤의 적정규모 결정과 성 에너지 이용에 관한 연구」 농림부 1995. 12.
- 高橋正郎 「地域農業組織革新」 農文協 1987 p.104
- 김경택, 강동일 “감귤 공동판매의 실태와 과제” 「아열대농업연구」 제13집 1996
- 김동환, 전창곤 「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333. 1995
- 김병률, 김명환, 최지현 「제주도의 청과물 생산 및 유통체계와 개선방안」
「농촌경제」 제1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 김병률 「신유통체계의 전개와 농산물 유통정책의 과제」 농정연구포럼
제44회 정기월례 세미나 결과보고서 사단법인 농정연구포럼 1997. 2.
- 김성훈 「산지협동유통의 사례분석」 농촌진흥청 산학협동 83-37 1983
- 김준오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농협조사월보」 1995. 12.」
- 김현숙 「농업구조의 재편과 생산조직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역음 농협중앙회 「작목반 운영실태에 관한 사례조사」 조사자료 82-17. 1982
- 농협중앙회 「협동출하조직의 조합사업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조사자료 90-8. 1990
- 성배영 외 「주요 청과물의 시장유통체계 개선방향」 연구보고 258 19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12.
- 주종항, 이재현 「일본의 영농집단(영농생산조직)의 형성과 전개과정」
한국농업정책학회 「농업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1991
- 최찬호 「작목반 협동의 본질과 전개방향」 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1992
- 허길행 외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연구」 C96-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12.
- 허인옥, 이원후, 김창명 외 「제주감귤과 주요품종」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2000
- 홍동식 「농촌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1996
- F · L Thomassen, Agricultural Marketing, 1951

2. 자료

- 감귤유통개혁기획단 「감귤생산 유통개혁 자료」 제주도 1996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97
- 농림부 「농산물 유통개혁 세부실천계획」 1998
- 농림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95작목반 육성성과 평가 및 영농지도요원 과제연구결과 보고회」 1996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협동출하반 육성평가」 1990
- 농협중앙회 「작목반 육성현황」 내부자료 1998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97작목반 재도약운동평가 및 영농지도 요원과제 연구결과 보고회」 1999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감귤유통처리 실태분석」 각년도
- 제주도 「감귤 수입 개방 대책(안)」 1994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감귤원예」 1998, 1999, 2000년도

The research about how to activate farmers group to develop the citrus industry

- Forcus on the farmers group growing citrus in Jeju-Do -

Lee, won-Hu

*Agricultural economics Major,
Graduate School of Industry,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GI-Y. Kang*

Summary

Since WTO was founded, the market of the agriculture products and distributions has been opened to the foreign country and our citrus industry faces both the danger and the chance of the development. Since the condition of the agriculture products distributions was changed, it is necessary that the organization of farmers group be rearranged and the way of activity be changed.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realities of farmers group and analyzes the development stages of farmers group.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way to activate farmers group and to foster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in order to satisfy the new distribu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agriculture products and to set up a distinction between our products and foreign agriculture imports, the reforming of the institution and revolution of its management is needed.

In the stage of the production, we must establish how to produce safe agricultural products and to distribute them in the low temperature. In the distribution department, we must exert all possible efforts to save the expense by an effective way and to raise the receiving price by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products and to activate farmers group. Because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es is very various and specific, in order to lessen the trial and error

in the process of the business, first of all, special abilities and many business experiences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executives are being required.

farmers group shoul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individual agricultural management and strength the competitive power by organizing the small-income farmers. Particularly Since 1980's farmers group has played a major role in increasing the farmers' ability to bargain in market and farmers group had to suffer several changes for the former 25 years.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divide and direct farmers group in three stages – the base stage, the general stage, the advanced stage –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cess. Observing the number of farmers group for recent several years, the number of the base and the general farmers group tends to decrease and the number of the advanced farmers group tends to increase.

Lately as the distribution market is opened to the foreign country, the foreign distribution companies of a large scale are marching out within our country and at the same time the domestic large corporations are advancing into the distribution industry.

The centers where goods are stored and distributed, which have been opened in our country since 1998, are supposed to reach 11 ones until 2001 and occupy 23% of the distribution of all agricultural products. In order that farmers group may send out goods to the centers or the distribution companies of a large size for themselves, we intend to present the practical assignments as following :

- (1) Standardizing the agricultural products which are sending out
- (2) Standardizing the units which send out the products
- (3) Sending out the products in the same price by the system of joint accounts is necessary.

Finally, we intend to summarize the ways how to activate farmers group in the three aspects to cope with the changes of the situations of the distribution and to solve the problems of farmers group

* In the aspect of the role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 (1) Reflecting the plan of farming into the project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 (2) Enlarging the technique of farming
- (3) Strengthening the role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in sending out the agricultural products
- (4) Strengthening the ability to bargain in market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in purchasing the materials
- (5) Building up the system and Supplementing human resources in sales department
- (6) Fostering the assembly of farmers group
- (7) Rearranging the organization of farmers group and improving the computer operating program
- (8) Reorganizing the standard to estimate farmers group

* In the aspect of the role of farmers group

- (1) Searching and Fostering the efficient leaders
- (2) farmers group's endeavoring for itself and Changing the way to think

* In the aspect of the role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

- (1) Reinforcing how to instruct the agricultural technique
- (2) Supporting farmers group positively which carry out the system of joint accounts and grow the products good for the health.

In conclusion, when farmers group minimize the distribution cost and offer products to consumers in a lowest price – when the organization of the farmers itself assumes the distribution exclusively and promote the negotiation power and provide the products of good quality for the consumers in a stable price, the competitive power against a foreign companies will be risen. The organization of farmers group should make an effort not onl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products but also to seek a new market and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consumers. Then the profits of the farmers will be increased and the organization of farmers group will be activated.

주1) farmers group = the group which work together and purchase materials and send out products jointly while growing the same products – citrus

작목반 관리 카드

작목반 명	작목반		
반장명	(회장)		
재배품목	주품목:	부품목:	
소재지	군(시)	읍·면(구)	리(동)
작성자	직:	성명:	(인)

濟州柑橘農業協同組合

1. 조직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조 직 면	반원수(결성일자)	명(결성일자 : 년 월 일)			
	발전단계	기초·일반·선진(전년도 평가점수 : 점)			
	공동기금 조성액	천원(예금주명 :)			
	경영규모	주품목	논: ha	밭: ha	과수원: ha
		부품목	논: ha	밭: ha	과수원: ha
생 산 및 출 하	경영규모 합계(ha) = 시설(ha) + 노지(ha)				
	※ 축산은 제외				
	생산 계획량	주품목	물량:	(톤, 두)	금액: (천원)
		부품목	물량:	(톤, 두)	금액: (천원)
		기타	물량:	(톤, 두)	금액: (천원)
	출하 계획량	주품목	물량:	(톤, 두)	금액: (천원)
		부품목	물량:	(톤, 두)	금액: (천원)
		기타	물량:	(톤, 두)	금액: (천원)
	작부시기				
	출하시기				
기 타	수상경력	작목반수상			
		작목반장수상			
	공동작업 실시현황				
	생산 및 유통교육 현황		(교육내용, 일시, 장소, 참여인원 등)		
	공동상표명, 선별 및 품질관리 활동 등		상표명: 선별방법: 품질관리방법:		

2. 공동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공동시설】

집하장	간이 집하장	저온 저장고	선과장	창고	육묘장	사무실	기타	계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공동장비】

(대, 조)

선과기	수송차량	냉동탑차	PC	FAX	포장기	지게차	콘베어	결속기
트렉터	경운기	콤바인	이양기	바인더	건조기			계

3. 농협 이용실적

(단위:천원)

출자금	예수금	공제계약액	공제불입액	기타

- 주) 1. 출자금, 예수금, 공제계약액은 기준일 현재 잔액 누계
 2. 공제불입액은 10월 이후부터 1년 단위 누계실적으로 기재

4. 농협 및 정부지원내용

【농협지원사업 수혜현황】

(단위:천원)

구분	자금지원				시설·장비지원(개, 대)			
	농안기금	유통 저리자금	조합 자체자금	기타	계			
전년도								
금년도								

【정부지원사업 유치 현황】

(단위:천원)

사업명(시설명)	사업년도	보조	용자	비고

5. 자재부문별 공동구매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비료	농약	농기계	일반자재	기타	계
전년 실적						
금년 계획						
금년 실적 (월별)						
조합사업 이용율	<input type="radio"/> A = ()/() <input type="radio"/> B/A = ()%	<input type="radio"/> 조합원당 구매액(A) = 조합구매액/조합원수 <input type="radio"/> 반원당 구매액(B) = 작목반구매액/반원수				

주) 해당년도 전년도 10월 이후부터 1년 단위 누계실적으로 기재

6. 출하처별 공동출하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농협사업장	도매시장	직거래	기타	계
전년 실적					
금년 계획					
금년 실적 (월별)					
조합사업 이용율	<input type="radio"/> A = ()/() <input type="radio"/> B/A = ()%	<input type="radio"/> 조합원당 판매액(A) = 조합판매액/조합원수 <input type="radio"/> 반원당 판매액(B) = 작목반판매액/반원수			

주) 1. 해당년도 전년도 10월 이후부터 1년 단위 누계실적으로 기재

2. 농협사업장 실적은 회원농협 판매기표금액이 아닌 소비지 계통출하실적을 기재하는 것임

7. 품질관리 활동

규격출하현황	총출하량(톤)	규격출하량(톤)	자율검사원수
			()명, 직책:
공동계산 실시 현황	공동계산 물량(톤)	참여인원	수출실적
			명 톤, 천원
품질인증 획득 현황	품질인증 획득유형	획득기관	획득 반원수
			명
잔류농약 과다검출 통보내용	(일자, 기관, 초과내용)		
속박이 등 불량품 발생통보 내용	(일자, 기관, 내용)		

8. 반원명부

※ 직책란에는 반장, 부반장, 총무, 기술부장, 기타임원, 반원순으로 작성

부록 II

작목반 운영활동 자가진단표

전 단 항 목	배점	평 가 등 급			평 가 기 준	
		I	II	III		
조직 활동 (27)	① 품목별 전문화 정도	5	3	4	5	○ 해당 작목이 작목반원의 농업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 - 80%이상 : 5점, 70%이상 : 4점, 60%이상 : 3점
	② 작목반원 운영관리	7	3	5	7	○ 조합의 공지사항(면적조성, 농업관측조사, 우수품질생산· 지 도)에 대한 반원간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 작목반원의 운영상황 기록유지, 사업체계화 수립 등 ○ 평가항목 : 규약체정, 운영기록부 작성, 반원명부관리, 고정자산 관리대장 작성, 사업체계화수립 - 5개 항목완비 : 7점, 3개 항목 : 5점, 2개 항목 : 3점
	③ 생산 및 유통개선 신기술 교육	10	6	8	10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개선 및 정보화교육 등 신기술 습득노력 ○ 평가항목 : 생산기술교육, 유통개선교육, 정보화교육, 선 진지견학(국내외 생산 및 유통현황) - 4개 항목이수 : 10점, 3개 항목 : 8점, 2개 항목 : 6점
	④ 공동기금조성	5	3	4	5	○ 조직의 활성화와 구조조정사업(채소, 과수, 화훼 등) 참여 를 위한 공동기금 조성 여부 - 2천만원이상 : 5점, 10백만원이상 : 4점, 7백만원이상 : 3점
① 영농자재 공동구매					○ 반원이 필요로 하는 영농자재의 공동구매 비중 - 소요자재의 100% 공동구매 : 8점 - 소요자재의 80%이상 공동구매 : 6점 - 소요자재의 60%이상 공동구매 : 4점	

전 단 항 목	배점	평 가 등 급			평 가 기 준
		I	II	III	
(23) 공동 계산	② 재베품 종 통 일	5	3	4	5
	③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10	6	8	10
(50) 상품성 제 고	① 선별기준에 의 한 규격선별	10	6	8	10
	② 규격포장 출하	10	6	8	10

○ 소비자기호에 부응하고 공동계산체 실시 등 성가제고를 위하여 우선 작목반원 전체의 재베품종 통일이 이루어져야 함

- 반원의 100% 동일 품종재배 : 5점
- 반원의 80%이상 동일 품종재배 : 4점
- 반원의 60%이상 동일 품종재배 : 3점

○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안전농산물(무농약, 저농약, 유기농법, 자연농법 등) 생산수준

○ 지도기관 및 영농지도요원이 지도하는 재배기법 준수

- 반원의 50%이상이 유기농법, 자연농법 실시 : 10점
- 반원의 100%가 농약안전 사용기준 준수 : 8점
- 반원의 80%이상이 농약안전 사용기준 준수 : 6점

* 단, 소비자로부터 Recall, 관련기관, 단체로부터 부적정 판정시 "0"점 처리

○ 소비자 선별 기준을 정하여

- 조합 또는 작목반의 공동선별시설에서 선별 : 10점
- 개별 선별하여 반원 100%가 선별기준 준수 : 10점
- 개별 선별하여 반원 80%이상 선별기준 준수 : 8점
- 개별 선별하여 반원 60%이상 선별기준 준수 : 6점

○ 소정의 규격내용에 따라

- 반원의 100%가 규격포장 출하 : 10점
 - 반원의 80%이상 규격포장 출하 : 8점
 - 반원의 60%이상 규격포장 출하 : 6점
- <규격내용>포장재 규격준수, 출하반원명 표시, 원산지 표시, 등급표시

전 단 항 목	배점	평 가 등 급			평 가 기 준	
		I	II	III		
② 품질관리		10	6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박이 균절 및 상품성제고를 위한 품질검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목반 자체 자율검사원을 확보하여 출하시마다 검사 : 10점 - 조합의 영농지도요원이 주기적으로 검사 : 8점 - 선별기준만 준수, 검사는 실시치 않음 : 6점
상품성 제고 (50)	④ 공동계산제 실시	10	-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계산제 실시 :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계산제 미 실시 : 0점 〈공동계산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격포장출하 → 작목반명의(송장) 출하 → 작목반단위 경매(판매) → 판매대금 공동정산(출하처) → 농가별정산 지급(조합)
	⑤ 계통출하 실태	10	6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물량의 100% 계통출하 :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물량의 80%이상 계통출하 : 8점 생산물량의 60%이상 계통출하 : 6점 〈계통출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목반 → 소속조합에 출하 • 작목반 → 농협공판장, 물류센터 출하 • 작목반 → 소비자 조합, 농협이 지정하는 판매처 출하

전 단 행 목	배점	평 가 등 급			평 가 기 준
		I	II	III	
부 대 사업 (가점10)	① 정부구조조정사업 참여	(2)	–	–	(2) ○ 평가일로부터 5년이내 정부 구조조정사업 참여시 2점
	② 공동시설 확보	(3)	(1)	(2)	(3)
					○ 3개 시설이상 보유시 : 10점 2개 시설이상 보유시 : 8점 1개 시설이상 보유시 : 6점 〈공동시설〉 – 공동농기계, 공동수송차량, 간이집하장, 공동퇴비장, 공동육묘장, 공동창고, 기타()
	③ 품질인증 획득	(2)	–	–	(2) ○ 품질인증 획득시 2점
	④ 내외 기관으로부터 작목반상수상	(3)	(2)	(3)	○ 평가일로부터 5년이내 수상내역 평가 – 중앙단위시상(협동조직대상, 이달의 작목반상 등) : 3점 – 도단위시상(협동조직대상, 이달의 작목반상 등) : 2점 단, 중앙단위와 도단위 수상 중복시 상위 기관 수상만 평가